

DADA

A BILINGUAL MAGAZINE

무료

한국

日本

中国

Sexy Fiction from THAILAND 3, 4

태국의 섹시한 이야기 3, 4

Ainori = Japanese / Korean social club 6, 7

아이노리 = 한국과 일본의 사회단체 6, 7

Falun Gong: Cultivation and Persecution 15

법륜공 :수련과 박해 15

FREE

A. Clode

DDD is

Creator and Editor

Scott Liam Soper(스캇 리암 소퍼)

Associate Editor

John M. Rodgers(존 엠. 로저스)

Art design / Tech

Seung Moon Choe(채승문)

Jr. Associate editor

Dae Hyun Chi(지대현)

Layout

Jin Hui Kim(김진희)

Intern

Woo Jung Kim(김우정)

Finance

Sarah Choi (세라 최)

Contributors

Aaron Clode (아론 클로드)

Andrew Baxter (앤드류 박스터)

Alix Tix (앨릭스 텍스)

Anna Kim (김안나)

Atushi (아투쉬)

Byoung Hee Park(박병희)

Caroline Kim (캐롤라인 김)

Derek Danton (드렉 단톤)

Drew (드루)

Don jelly cow (돈 줄리 카우)

Fiona Jackson (피오나 잭슨)

Gyubang (규방)

Insu Park (박인수)

Jack Quin (잭 쿼인)

Jay Lee (제이 리)

James Lee (제임스 리)

Janet Jun (자넷 준)

Je woon Lee (이재운)

Jean Brisbois (장 브리스보아스)

Joanne Park (조안 박)

Joel Bewley (조엘 베월리)

Jung Il Seo (서정일)

Jung Hyun Lee (이정현)

Karen Hanna (카렌 한나)

Kari Shenk (카리 섀크)

So Hee Kim(김소희)

Sara (이은숙)

Mi Yung Lee (이미영)

Min (민)

Nick Bausman (닉 바스맨)

Nigel Salvio (나이젤 살비오)

Shige (시게)

Sohee Park (박소희)

Vincent Sung (빈센트 성)

Woo Jung Kim (김우정)

Yeon Hee Im (임연희)

Young Bok Kim (김영복)

Yuni (유니)

Friends

Ainori

Amnesty International

B H Productions

Club Day

Green Party Korea

Gwangju Biennale

English Spectrum

Hedwig

Nanoom Communication

Neity Design Company

Nexus Books

Music Cafe

Noori bar

Seoul Times

Subway Sandwhich

Skunk club

Toastmasters (Gangman)

Copyright © DDD 2005. All rights reserved.

www.lifeinkorea.org



dddlifekorea@yahoo.com (eng)
dddmagazine@yahoo.com (한국)

DDD WANTS YOU!!

읽어 보세요!

우리잡지에 참여하세요!

DDD magazine wants
Koreans and foreigners
who like to
draw,
write,
translate,
animate,
and
other creative things.
How do you want to be involved?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DDD magazine은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번역,
편집,
기사 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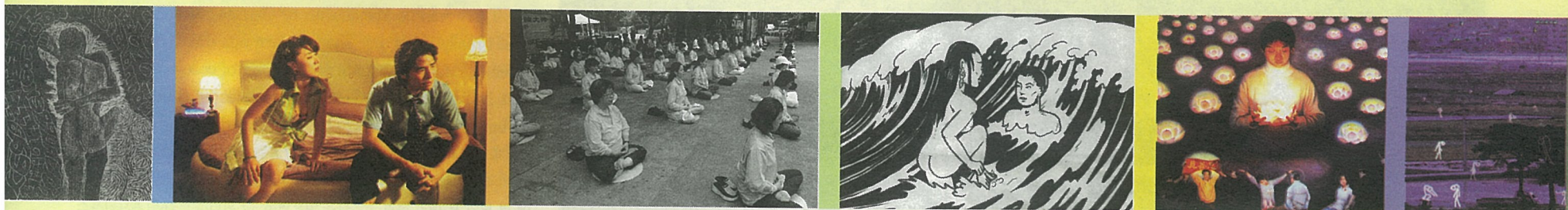
창조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문화인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DDD활동에 참여 하시려면

dddlifeinkorea@yahoo.com으로 연락 주세요.

Welcome to DDD 환영합니다



by 김우정
by Kim Woo Jung



안녕하세요, 김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DDD 매거진을 만나게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을은 독서하고 사색하기에 더할나위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찬공기속에 태양이 밝게 비추고, 온몸을 감싸고있는 스웨터의 촉감은 마치 따뜻한 포옹과 같습니다.
차의 향과 맛은 더욱진해지고, 카페와 편안한 의자는 가을을 느끼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특히, 여러분
들이 매거진을 넘기는 동안 색을 달리하는 나뭇잎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더 그럴것입니다.
이번 DDD 매거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실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장애라는것이 왜 이 세상의 수치로 간주되어지는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있는 한국 단체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
을 받게 되실것입니다.
국제적인 논쟁, 그 이상으로 과열되고있는 중국 판문공단체와 정부사이의 대립을 여러분들은 발견
하실 것입니다.
이 논쟁에 의해 제기되는 의문은 진실로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고향, 한국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일본과 한국사이의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노리와 함께하는 이야기는 한잔
의 따뜻한 차와 함께 읽을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지난 10월에 열린 제 1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
습니다. 두 부분으로나누어지는 영화이야기중 이번호에서는, 한국영화계의 수면위로 떠오르는 스타
와의 대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렌즈를 통해 본 이번 매거진은 여전히 더한 아름다움과 빛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한 자원자들의 마음과 상상력, 그리고 몇몇의 그림들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웃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동안 매거진의 좋은 중앙 페이지를 보지못하셨다면, 이번 저희 매거진이 보여드
립니다. 사랑인가 혹은 앵그리 인치 그 이상인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신다면, DDD 매거진의 창시자이자 편집자가 최근 태국으로의 여행에서 쓴,
약간의 외설적인 소설을 통해 매거진의 즐거움이 더해질것입니다.
선스크린과 샌드백을 잊지마세요!
편안하신가요?' 여자' 라는 단편 소설로서 문학적 즐거움이 계속됩니다.
많은 말과 사진이 필요할까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차 한잔 더 드릴까요?
해는 이미 지고있습니다. 장소를 바꿔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주 한잔과 이태원에서의 짜릿한
밤은 어떠세요? 자 준비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대신 천천히.. 천천히..
이 아름다움 있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면 북한산으로 산책을 가서
도 좋고, 저희 매거진의 웹사이트www.lifeinkorea.org 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매거진의 지난 이야기들과 사진들을 담아놓았습니다.
디디디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Hi, I'm Woo Jung. I'm happy you picked up DDD Magazine. Fall is a great time to read and reflect. The air is crisp. The light is clear and bright. Sweaters feel like hugs. Tea tastes better. Cafes and easy chairs are a good place to be. Especially ones where you can watch the leaves on the trees turn color while you turn the leaves of DDD Magazine.

In this issue of DDD you'll encounter a diverse range of issues and ideas to reflect upon. You'll be asked, "Why are disabilities considered to be a shame in this world?" as you read about a Korean organization that is fighting for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You'll discover that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members of an organization called the Falun Gong has spilled over even more into international spotlight. The questions raised by this issue are tru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Closer to our home here in Korea you'll meet some people who are trying to build stronger bonds of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Korea. 'Ainori' is worth the read with a good cup of tea.

For the film fan in all of us DDD returned to the 10th Annu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his first of a two-part expose, you'll listen in on a conversation with a rising star of Korean cinema.

Through another lens, this issue brings still more beauty to light. Check out what some volunteers with heart, imagination and a little paint did to help transform the world around us. Smile. Smile. Smile.

And, if you haven't seen a good smile on a centerpage for a while, check out ours. Is it love or is it more than an Angry Inch?

Speaking of love, the beloved editor and creator of DDD rustles the leaves of this issue with some risque fiction penned on his recent trip to Thailand. Don't forget your sun-screen and sandba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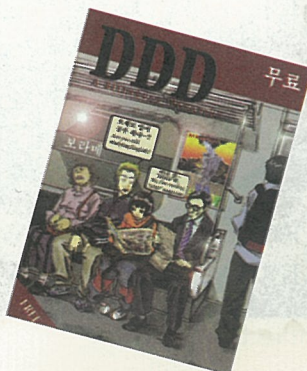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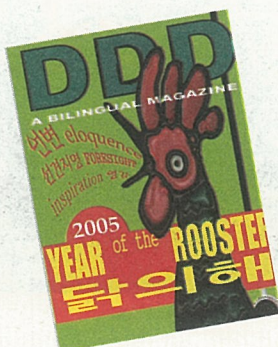
Get comfortable. We continue in the literary vein with the short story "Woman". Is a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 or is a word worth a thousand pictures? Good question. Great story. More tea? Perhaps not, the sun is setting. Time to change places. Time to switch to soju. How about a crazy night in Itaewon? Ready! Set! Read! Slow...

If these leaves still aren't enough, and you still want more, you could go for a walk up Bukhansan. Or you could visit our website www.lifeinkorea.org. There you'll find some of DDD's past stories and pictures too. We posted them just for you. After all, DDD is made by you, for you. So, please open your heart and come on in. You're always welcome and we want you.

Literally Yours



DDD잡지는 영어와 한국어로 발행되는, 이통언어 무가치로
서 한국의 문화와 세계문화와의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함께할 퍼블리싱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The Pope of Phuket

By Scott Liam Soper

The writer is creator/editor of "DDD". The rest of this story will be going up on www.lifeinkorea.org



Apichae is 48 hours from the flight that will take him from Bangkok to JFK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York. He sometimes tells the tourists visiting Phuket and staying at the Princess Hotel that the scars on his arms are from the Tsunami. They are not. They are from numerous motor scooter crashes that Apichae challenged himself and his friends into after the Tsunami and while the Andaman Sea was getting back almost to where it should be.

아피채는 48시간 후면, 그를 방콕에서 뉴욕 JFK 국제 공항으로 데려가 줄 비행기에 타게 된다. 푸켓의 프린세스 호텔에 묵는 관광객들에게 아피채는 쓰나미 해일 때 다쳤으며 종종 자신의 팔에 있는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곤 했었다. 물론 아니다. 사실 그 상처들은 쓰나미 재해 이후에 안다만 바닷가를 복귀하는 기간 동안, 아피채와 그의 친구들이 짜고 뛰어 들었던 무수히 많은 모터 스쿠터 사고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After Apichae and his friends crashed all of the scooters whose owners couldn't be found, he started to think more about life and his future. He reckoned that he was handsome enough to go successfully live in New York City. He was. His face was often animated by a lower jaw that wagged all the time except when he was walking or talking. He had black silky hair kind of long then tucked in up front; one long curl arriving at his collarbone.

아피채와 친구들은 주인없는 스쿠터들을 들이받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피채는 문득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뉴욕에 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다. 그의 얼굴은 걷거나 말할 때를 제외하곤 늘 실세 없이 움직이는 아래 턱 때문에 활발해 보이기는 한다. 검고 윤기 있는 긴 머리를 앞으로 말아 올리고, 길게 한 줄씩 빼서 쇄골에 닿게 내려 놓은 곱슬거리는 긴 두 줄의 머리카락은 그를 섹시해 보이게 해준다.

His beauty was tropical but not so typical. The gods gave him a French curl and not even the Tsunami could take that away so everyday was a happy one. Another reason Apichae was generally happy was that a visa was made available for him after the Tsunami though not because of it.

그의 잘생긴 외모는 열대 지방의 이국적 외모였지만, 그리 전형적인 열대 지방의 외모는 아니었다. 신은 그에게 아름다운 프렌치 곱슬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해주었며, 쓰나미조차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늘 행복했다. 아피채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쓰나미 재해 이후에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재해 때문에 비자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There is no visa lottery for Thai nationals who want to travel for long outside their kingdom, but he received an open three month tourist visa from a combination none the less. He finished with the highest rank from his mandatory army service and then procured a visa with the help of his sister's connection. Her medical school instructor; a doctor from Louisiana whom she had just accepted a marriage proposal from.

태국에서는 장기간의 해외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태국 국적 국민들에게 비자 행운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3개월 자리 관광 비자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의무 군복무를 가장 높은 계급으로 끝마치고 나서, 여동생의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비자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의과 대학 강사는, 루이지애나 출신의 의사이며, 여동생은 그의 청혼을 막 받아들였던 것이다.

Apichae's sister Reia had always been the straight-A brains in the family, but it was he who had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life and even sometimes politics so; he would use his looks to cut the path to wherever the world would take him.

아피채의 여동생 리아는 늘 A학점을 받아온 가족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외국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심지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피채였다. 그는 언젠가 외모를 이용해서 자신을 알아줄 세상으로 가려고 꿈꾸고 있었다.

Yes, he had city looks and New York was the place he wanted to live since he could remember watching it in music videos and movies while in the different rooms of the Princess.

그랬다. 그는 도회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기억하기에 프린세스 호텔의 다른 방에 머물렀던 동안에 영화와 뮤직 비디오들에서 나온 뉴욕을 봤던 이래로 줄곧 뉴욕은 그가 살고 싶은 도시였다.

He sometimes forgot who the president over there was for the whole teeming country, but Apichae liked him because he spoke English in half sentences... as if he was forgetting what to say and had to take a break in the middle of a sentence and re-tune in. To Apichae it was like the president of that huge country made English easy and was speaking directly to him.

아피채는 누가 그 풍요로운 나라의 대통령인지 가끔씩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가 영어를 문장의 반쯤만 말하기 때문에 아피채는 그를 좋아한다. 그

래서 무엇을 말해야 할 지 잊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말하는 중간에 쉬었다가, 잠깐 다시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아피채에게는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 영어를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은 것이다.

There was no Manchester or Chelsea football there. He didn't really know any Thais or farrangs there. But he read several O' Henry stories in his one year of college and sensed that behind those perfect little fantasies of penthouse and pavement were the people he belonged with.

맨체스터나 첼시 같은 축구팀도 없다. 그는 정말로 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단지 1년 동안의 대학 시절에 몇 편의 오 헨리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그 완벽하고 작은 펜트하우스와 포장도로로 이루어진 상상 속의 세상이 자신이 속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꼈다.

Also, what filled up the picture that Apichae had of New York came from the only tourist that took a real interest in him, Clay, a New Yorker who stayed at the Karon Princess hotel where Apichae worked. They met when trying to get the air-con to work in Clay's room. A few days later Apichae saw him bicycling along Karon beach and somehow more or less keeping up with the multitude of motor scooters.

뉴욕에 대해 품고 있는 아피채의 청사진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은, 카롱 프린세스 호텔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에게 관심을 보였던 유일한 뉴욕 출신의 여행객인 클레이였다. 클레이 방의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 갔을 때 그를 처음 만났었다. 며칠 뒤에 아피채는 카롱 비치에서 많은 모터 스쿠터들 틈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다소 비슷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를 보았다.

That late night was not a rainy one as Apichae was sitting at the hotel bar in a pair of jeans and a buttoned white cotton shirt with a western collar that everyone noticed was different than what the other hotel staff wore. Clay was mostly just wearing a sea salt crust starting at the whips of his hair and carrying a pair of sneakers from a brand not famous in Thailand.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밤, 청바지에 서구 스타일의 흰색 셔츠를 입고 아피채는 호텔 바에 앉아 있었다. 다른 호텔 직원들이 입고 있는 것과 달라 보이는 그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눈에 띄었다. 클레이는 대부분 딱딱한 바다 소금이 들러 붙어 있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태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의 스니커즈를 끌고 다녔다.

He was turning in circles looking back towards the Andaman coast perhaps wondering if he should go back into the strong surf which no one was supposed to swim in of course, and that's when Apichae greeted him with the smile



푸켓의 교황

famous for Thailand. Clay sat down facing him, ordered a beer, and started to speak towards the sky obviously possessed by more of an experience than illegal swimming.

그는 빙글 돌아서서 아마도 다시 저 강렬한 서핑의 유혹 속으로 돌아갈까 하고 망설이는 것처럼 안다만 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수영을 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때 아피채는 그에게 유명한 태국식 미소로 인사를 건네었다. 클레이는 그의 앞에 앉아서 맥주를 주문했다. 그리고 하늘쪽을 바라보며 분명히 무엇인가 흘린듯한 표정으로 불법 수영이 아닌 한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I was in the valley and then the waves". Apichae quickly tuned in but knew he had to listen to more than these first words to understand.

"나는 계곡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파도를 탔어" 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아피채는 재빨리 알아듣기 위해 집중하려했지만,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이 첫번째 몇 단어 이상의 것들을 들어야만 했다.

"I really didn't know until it was too late," he continued, "I was walking on the beach looking for a place to swim and... then... this... this, amazing body came up to me took off.... her... top... and pulled down my shorts." This was the type of piece by piece sentence that Apichae was comfortable with. Still, he realized that this farrang talked much faster than the American president.

"나는 정말로 너무 늦었을 때 까지도 몰랐지... 나는 수영을 할 만한 장소를 찾으며 해안을 따라 걷고 있었어... 그런데... 그... 그... 굉장한 몸매를 가진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그녀의 옷을 벗어 던... 지고. 내 반바지를 끌어 내리더라 말야" 그는 한 마디 한 마디 씩 문장을 얘기 했기 때문에 아피채가 알아듣기 편했다. 하지만 그는 이 외국친구가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빠르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I was down on the sand and these breasts that were 40 inches a piece were on me. They were like sandbags stacked up as part of a seawall... Oh Shit Apachee! I was sandbagged on the beach!" The farrang drank half the beer and showed what was what with his hands by making the shape of a half-barrel then rolling it up and down along his hips. Apichae smiled instinctively getting the meaning of the illustration but just now kind of getting the last part of the sentence.

"나는 모래 위에 누워 있었고 한쪽이 40인치는 족히 되는 커다란 가슴이 내 위에 있었어. 그 유방은 마치 방파제에 쌓아 올려진 커다란 샌드백 같았 다구... 오, 제기랄! 내가 모래 위에 샌드백이었지!" 그는 맥주의 반을 들 이키고 나서 두 손으로 커다랗게 반 원형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손을 엉덩 이 있는 데까지 올렸다 내렸다 하였다. 아피채는 본능적으로 그 손동작의 의미를 알아채고 웃으면서 그 말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있었다.

By now they were both smiling as the farrang breathed deep again like he had too much salt in his lungs and words in his mouth.

이제 그들은 모두 미소를 띄고 있었다. 이 외국친구는 마치 폐 속에 소금 기가 너무 많이 있고 입안 가득 단어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 마셨다.

"It seemed all right what happened Apichae, and I knew I had to give her money but the... After I handed her 300 baht, she wiped her tits with it, walked away, turned around, and dropped her pants and... Jesus Christ! She had a penis!"

"뭐 나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 아피채.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돈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그녀에게 300 바트를 건네 주고 나자, 그녀는 그 돈으로 유두를 문지르더니 걸어서 멀어져갔어... 그러더니 뒤 돌아서며... 바지를 쓰느 내리더라... 오, 세상에 맏소사... 그녀는 페 니스를 가지고 있더라구!"

Apichae heard the name of a different God and laughed out



loud followed by the breath an audience takes when they're not sure if this punch line wasn't the end of the comedy but the beginning of it.

아피채는 잘 모르는 어떤 신의 이름인가 보다 싶었지만, 청중들이 코미디가 언제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저 막 웃어 대는 것처럼 분위기가 크게 웃어 제쳤다.

"Dazed and confused in silicon valley," the performer said. "And you went for swimming!" The pretty boy smiled and raised his beer as did Clay. Apichae didn't look at the toasting bottles but into eyes of Clay and those were turned outward away from the act of toasting and in search again of foreign shores.

"실리콘 벨리에 눈이 멀어 갈팡질팡 했었지"라고 클레이는 연기 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수영을 하러 갔군요!" 꽃미남은 그저 웃으면서 클레이에게 맞추어 맥주병을 들어 올렸다. 아피채는 건배 하는 병을 쳐다보지 않고 클레이의 두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건배의 동작에는 아예 관심도 없이 저 멀리 이국의 해변가를 다시 찾아 헤메이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Finally, Clay came back and reached for a cigarette. Likewise Apichae reached over to light it for him and in front of the high-tide sound of collapsing waves the single click of the lighter was more like the pope of Phuket giving his blessing than merely lighting someone's cig.

마침내 클레이는 돌아와서는 담배를 하나 집어 들었다. 동시에 아피채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눈 앞에 있는 부서지는 높은 파도의 소리와 어우러져 라이터의 찰칵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담배 불을 붙여주는 소리라기 보다는 마치 푸켓의 교황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Occasionally Apichae would field questions from tourists about the habits of Katooeys or Lady-boys but now he was drifting in his mind back to last night and the German women that came back to the Karon Princess hotel drunk and wanting to drink more. They asked Apichae for beer in the foam coolers called beer condoms. They stressed the word "condom" more than once thinking that was funny. And then it was his turn. Apichae smiled at them and smoothly rolled up his shirt sleeves and told them,

"These scars were from Tsunami Tsunami. I watching the Tsunami wave come in...."

아피채는 가끔씩 관광객들의 카투이 (호모 또는 게이를 뜻하는 태국 말)나 여장 남자들에 관한 질문에 꽤 잘 대처 하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리는 지난밤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잔뜩 취한 채 카롱 프린스 호텔로 돌아온 독일 여자들이 술을 좀 더 먹고 싶어했었다. 그들은 아

글쓴이: 스캇 리암 소퍼

이글의 작가는 DDD의 편집장이자 발기인입니다. 이글의 나머지는 저희 웹 www.lifeinkorea.org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피채에게 맥주콘돔이라고 불리는 거품 쿨러 속에 있는 생맥주를 달라고 했다. 그들은 "콘돔"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주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즐거워했다. 아피채는 웃으면서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상치들은 쓰나미 때문에 생긴겁니다. 나는 쓰나미 해일이 밀려 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Clay grabbed another cigarette and offered up one to Apichae who was back in the present and unexpectedly came out with,

"I know the stories of O' Hanray and those people are the real."

The farrang thought he was talking about the French footballer so he lit his own cigarette now and paid attention to its clouds of smoke where the incomprehensibly pretty face that was attached to that fantasy body on the beach appeared behind the smoke.

클레이는 다시 담배를 입에 물면서 아피채에게도 하나 내밀었다. 아피채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불쑥 얘기를 꺼냈다.

"오 헨리의 소설들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실재하는 것 같아요..."라고... 외국친구는 그가 그저 프랑스 축구 선수에 관해 얘기 하나 보다 라고 건성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담배를 빨아 물면서 담배 연기 뒤로 사라져 가는, 그 해안에서 본 만큼 수 없을 정도로 예쁜 얼굴과 환상적인 바디에 생각을 몰입하고 있었다.

"How can it be?", he wondered out loud. Apichae explained how he had been to college and read American stories and O' Henry's were his favorite. Clay was startled and nodding now really in-between worlds and drags as he paid close attention to Apichae while telling him that he also had read some O' Henry.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피채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미국 소설들을 많이 읽었고 그 중에서 오 헨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얘기했다. 이에 클레이는 놀랐다. 정말로 세상들과 여장남자들의 중간에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또한 오 헨리의 글들을 읽었다고 말하며 주의를 집중했다.

Apichae left his cigarette alone to tell Clay that he knew of Thais in the south part of the country who were,

"Trouble making with Muslim terror." Anything could have followed that, but Apichae was called up to the front desk. Maybe the German women were back.

아피채는 담배를 내려 놓으며 클레이에게 태국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 테러와 분쟁을 하고 있는" 태국인에 관해서 말한다. 무슨 일이나 이야기든 다음에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피채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호출을 받았다. 아마도 독일 여자들이 돌아 왔다 보다.

He stood up without trying while solemnly declaring that he was

"Not a Muslim but a Buddh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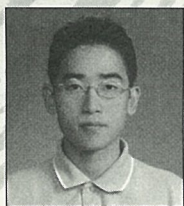
It was such a natural good night note that Clay went upstairs to his room and didn't even bother to sh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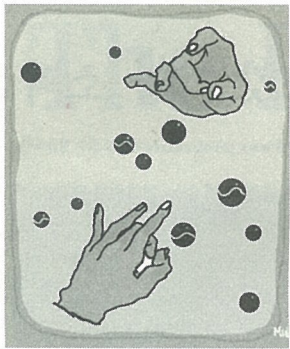
그는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듯이 말했다. 그는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불교도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밤 인사였기에 클레이는 위층의 그의 방으로 올라가 심히 사뭇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다.

Writer and Translators Sohee Kim and Mar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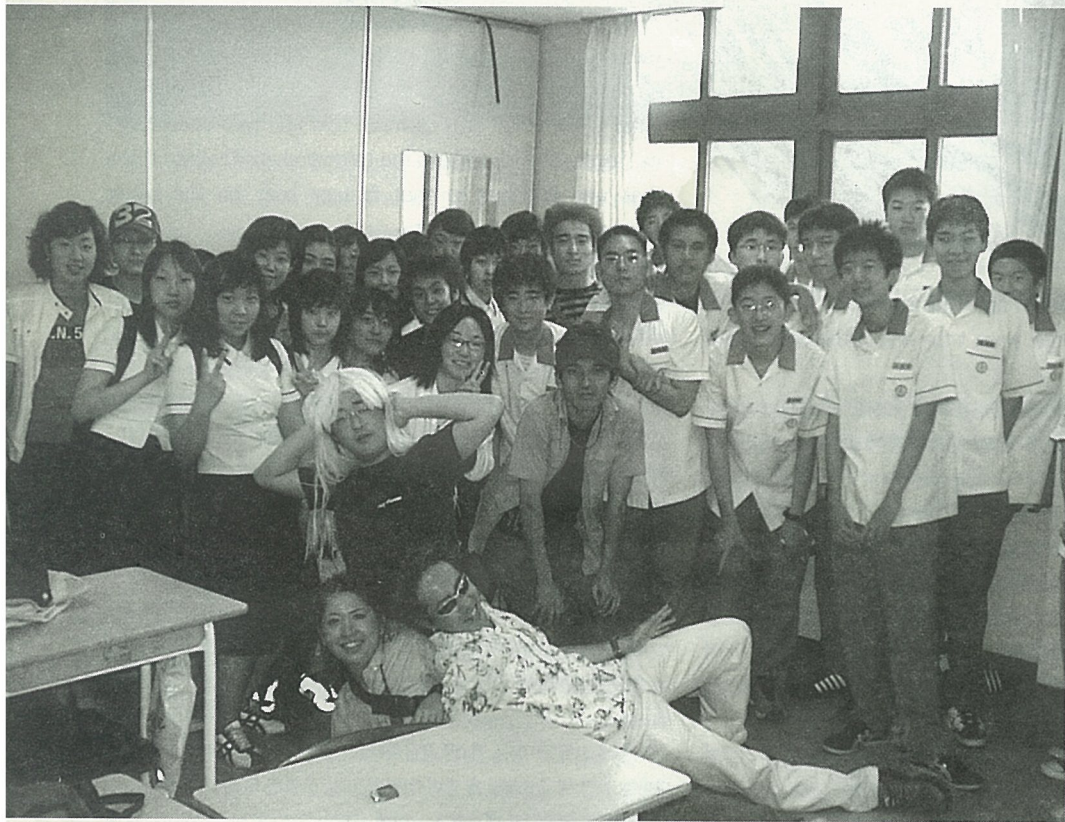
번역: 김소희, 지대현





Ainori = Japanese /

아이노리 =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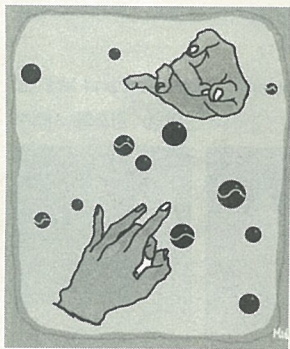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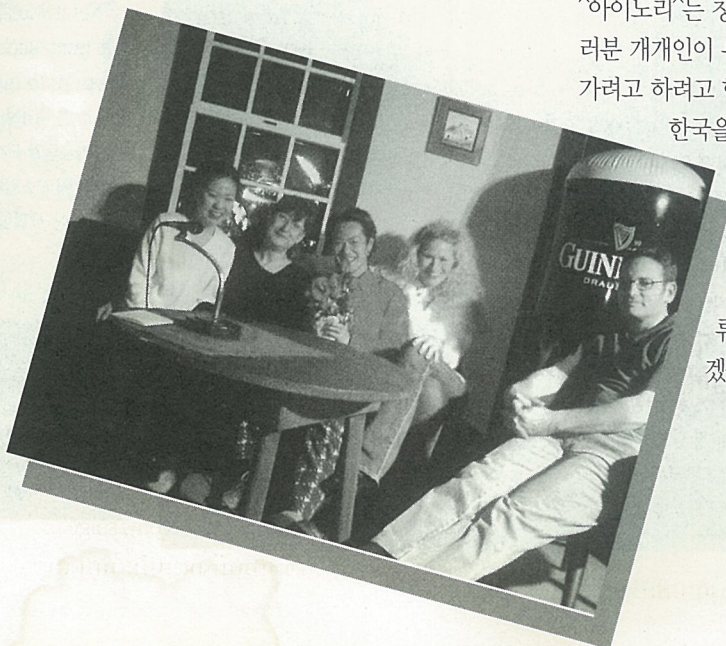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종로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한국과 일본에 관해 알려는 한일 양국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일본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을 시초로 일본의 '온사마 붐', 한류 붐'으로 불리는 기류가 일어나고 주말에 명동에 가면 시부야 아닌 가 하는 느낌을 받는 일본인이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노리" 라는 한일 교류 단체를 살 펴보겠습니다.

"아이노리"는 2001년 4월, 서울의 종로에서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후,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나그네 기질을 고려하여 창설자인 저는, 종로에서 신촌, 고려대학교, 명동을 거쳐 한일 교류의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2005년 9월에 시작 점인 종로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교류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신선한 '아이노리'의 발상은 현재 많은 교류회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립 목적은 국경을 무시할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꼭 넘어 보자는 취지에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에, 2001년 4월, 뜻을 같이 한 일본여성 과 함께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을 모아 교류의 장을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노리' 같은 한일교류라는 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회 30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진정한 국제교류를 나누고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갔던 것을 지금까지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기만 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반일감정이 높은 사람들의 오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해 '아이노리'의 존손까지도 위험했던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경찰의 기동대까지 동원해서 왔던 '김치 페스타 와해협약'의 2002년 12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차이(정확함을 구하는 일본사회와 유교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사회)를 엿볼 수 있었던 가슴 아픈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마음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노리'에 와 주었던 사람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라든가, 웃는 얼굴로 만족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원이 적어서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반복하는 동안에 '아이노리'의 기여에 인정 받아서 잡지나 신문, TV 취재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단체라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적인 한일교류를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아이노리' 스태프들은 여러분이 결정한 가족 같은 따뜻한 공간을 가꿔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아이노리'는 창립 당초의 목적을 가지면서 현대에 발 맞추어 '와 주신 모든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아이노리'는 한일교류의 모범이 되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한 번쯤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동경에서도 정기적으로 '아이노리' 교류회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경에 가는 법은 한 번 둘러와서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서울, 동경 교류회와 함께 국적,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국제교류단체 '아이노리'는 여러분의 방문을 마음으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Korean social club

This story is written in three Languages by members of AINORI

일본의 사회단체

이 글은 아이노리의 한멤버에 의해 세계의 언어로 쓰였다.

?週土曜日の午後になると 鐘路が盛り上がる°韓?と日本について知ろうとする韓日??の人?が一箇所に集まるからである°最近 韓?日本の文化を理解しようとする人たちが2002年のワ?ルドカップを皮切りに°日本での<ヨン?ブ?ム°韓流ブ?ム>を呼び起こし°週末明洞に行くと°谷ではないかと勘違いするほど日本人が多い°そこで°あいのり°という韓日交流の??を?いてみましょう°

°あいのり°は°2001年4月にソウル市<鐘路>で産?をあげました°それ以?一ヶ所で落ち着くのが好きではない自由な思想の持ち主であり°創設者である私°平澤茂°同?に°鐘路°新村°高麗大°一明洞に°韓日の交流の種を振りまきながら°2005年9月に生まれ故?である鐘路に?ってきました°そもそも°交流?というコンセプトを作り出した新しい°あいのり°の°想°は°現在では°多く存在している交流?の原点を作り出しました°創立の目的は°境がなくなっている今日この頃ですが°韓?と日本は昔から<近くても遠い?>といわれてきました°この壁をぜひ?り越えて°?の交流ができればどんなにすばらしいかと思い°2001年4月に有志の日本人女性と一?にいろいろな方の協力を得ながら°スタ?ト地点に立ちました°その?時°°あいのり°のような韓日交流の??がほとんど存在していなかったために°?回30名以上の韓?人と日本人が°?の?際交流をして笑顔で家に?っていたことを今でも鮮明に記憶しております°?しいこと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反日感情が高い人たちとのイザコザをはじめ°あいのり°の存?まで危ぶまれた事件も°多くありました°中でも一番記憶に?っているのは°韓?警察の機動隊までを動員して行った<キムチフェスタ和解協議 2002年12月>です°この事件は°韓?と日本の文化の差の違い(正確さを求める日本社?と°儒?文化が深く?っている韓?社?)を窺うことができた苦い思い出として今でも心の?に?っております°その一方で°あいのり°に?てくれた人が<本?に?しかったです>とか°笑顔振りまきながら°足そうにかえっていく姿を見ると°人?が少なくて投げ出そうと思ったりしたことがある自分を恥ずかしく思わせたりもしました°

?史を重ねるうちに°あいのり°の社?貢?が認められて°誌°新聞°TVからの取材も°多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私たちが求めているのは°有名になるということよりも°むしろ小さい??でも<自由な雰?で家族的な韓日交流を末永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せ?このことを°頭に入れて°あいのり°スタッフ一同は皆?が°快適で家族のように暖かい空間を保つように日?努力をしております°これから°あいのり°は°設立した?初の目的をしながら°時代に?じて?ていただく?員の皆?一人ひとりが私たちの家族の一員>というコンセプトで°み?けて生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あいのり°は°韓日交流の模範になるだけでなく°韓?を訪れる°光客にも一休みできる空間になれるように精進します°ソウルだけではなく°東京でも定期的に°あいのり°の交流?が行われているので°東京に行かれる方は°一度?い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ソウル°東京交流?ともに?籍°年?を超えた?の?際交流??°あいのり°は皆?のご?店を心からお待ちしております°



Every Saturday afternoon, Jongno street heats up due to Japanese and Korean people gathering together and wanting to know about each other's culture. Ever since 2002 Korea and Japan Worldcup, so-called "Yonsama boom, Hanryu boom" has been rising among Japanese people. Many Japanese go shopping on Myungdong street and the weekend feels as if it were Sibuya street. From these areas, I would like to start looking in to "AINORI", a Korea and Japan Cultural Exchange organization.

In April 2001, Jongno street witnessed the vigorous kick-off of "AINORI". Ever since then, I, drifter-minded founder, moved around from Jongno street through Shinchon, Korea Uni areas and Myungdong. Then I came back to the starting point, Jongno in Sep 2005. I am still holding to the initial intentions of enhanc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The first ever concept of cultural exchange, "AINORI" is virtually the matrix of many current cultural exchange organizations. Korea and Japan have long been dubbed as "close and distant countries". I wanted to overcome this distance between two countries and achieve a good relationship in which two sides share and exchange each other's cultrue and so on. This was my founding intention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fascinating.

When I came to Korea, there were no such groups as "AINORI", so everytime we had our gathering about 30 or more Korean and Japanese people came and had a happy time. We shared each other's culture and it is an unforgettable memory of mine. But it is not that everything went well all the time. There were often several incidents that threatened "AINORI"'s existence. Misunderstaings of some Korean people who carried high hostility against Japan scared us all. "The Kimchi Fiesta 2002 Dec incident" was one of them and Korean SWAT team came in to break up our gathering. This incident still lingers in my mind as a heartbreaking memory and well echoes the deep, sad canyon between my two countries. Despite various hardships, many people who visited "AINORI" sites told me that they had a really good time and went home with a big and satisfied smile on their faces. This really helped me keep going with "AIN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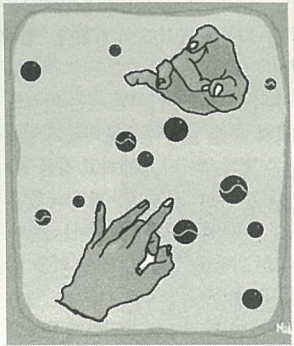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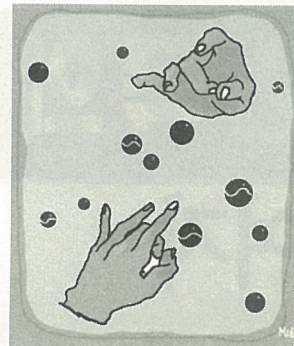
As time went by, our contribution to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got recognized, so magazines, newspapers and TV stations covered our story. However, what we have always sought after is not getting more media coverage but "having Korea-Japan cultural exchanges in a familylike and liberal environment". With this intention, we added a new motto, "Every visitor is a member of our family" for the new generations and new century. "AINORI" will try to be, not only an exemplary group of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but also a friendly place for travellers in East Asia. We hold regular meetings in Seoul as well as Tokyo. So, why don't you visit us if your have a plan to trip to Tokyo. We will be waiting for your visit with open minds and warm hearts.

Contact info

phone :02-541-3061

website : www.freechal.com/shige

email : shigeloveskorea@hotmail.com



한국의 독창적인 생각

여자

자넷 전

엄마는 단 한번 미국에 오고 아빠를 만나기 전 사랑에 빠졌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네 남편에게 그를 만나기 전 애인(=Lover) 있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거라.”

그것이 아빠는 엄마의 또 다른 남자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엄마의 이야기 방식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있어서 ‘애인’ (=Lover)이란 어떠한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녀의 정의와 나의 것이 같은지, 확실히 ‘애인’ (=beau)을 의미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애인은 나에게 있어서는 열정, 섹스, 강렬한 욕망을 상기시킨다—전업주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아마도 그녀는 위의 것들 중 몇몇을 의미했을테고, 나는 그저 그것들 중 어떠한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너의 처녀성을 간직해라”(stay a Virgin) 그녀는 그녀의 손을 나의 얼굴 가까이 대며, 그녀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똑바로 쳐들어 ‘V’자를 만들어 보였다.

나는 결눈질로 그것을 보았다.

그 ‘V’자는 내가 뉴욕으로 떠나기 전, 그녀의 이별의 동작이 되었다. 나는 또 다른 제스처가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 다른 말들—아마도 사랑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미소, 키스, 손을 꼭 잡는 것. 그

“너의 처녀성을 간직해라”(stay a Virgin)

그녀는 그녀의 손을 나의 얼굴 가까이 대며, 그녀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똑바로 쳐들어 ‘V’자를 만들어 보였다.

러나 단지 저 세 단어와 그녀의 쓸쓸한듯한 여성스러운 손가락의 이미지만이 내 마음속에는 남아있다, 그들의 명백함 혹은 단순성때문이 아닌, 그것이 나에게 이 다른 남자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전의 남자.

내가 엄마에게 아빠가 엄마의 첫사랑 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빠를 그녀의 첫사랑 이라 부르길 거부했다, 그녀는 웃으며 “나도 모르겠구나, 신경 쓰기 싫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그 ‘V’의 저편에는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이야기. 사랑, 상처. 그리고 또다시, 아마도 나는 그저 뭔가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엄마도 한때는 나와 같았을 것이라고 믿고싶었기 때문에—접촉에 대한 갈망, 거친 입술, 지친 목을 편하게 해주는 뜨거운 숨결.

나는 망설였다. “그의 이름이 뭐였어?”

그녀가 그녀의 기억을 더듬는 동안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진형.”

그 음절들을 반복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나의 안은 들끓었고 그 이름은 내 속에서 폭발했다.

고독한 반항적인 군인의 형상이 내 앞에서 번득었다. 그의 각진 턱은 집중으로 잡아당겨지고, 안으로 굴곡이 있는 살짝 굽은 코, 진하며 완벽한 모양의 눈썹, 날카로우며 선명하게 윤곽이 드러난 그의 이목구비, 팔뚝의 근육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피부 밑을 움직이며 그가 땅으로 담배재를 털었다. 그는 나를 올려 다 보았고 그의 눈은 아픔과 말할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러한 표정을 알고있다. “강한 턱을 가진 남자가 침대기술에도 뛰어난 거 너 아니?”

“엄마!” 나는 놀라서 숨이 막혔다. “엄마가 그런걸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마치 나는 너의 엄마지만 나는 아직도 여자이고 너에게 섹스에 관해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듯이 엄마는 단지 깔깔거릴 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엄마가 선명하고 강한 턱을 가진 남자가 좋은 애인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을 아는지 궁금했다, 만약 그것이 그녀에게 전해 내려져온 지혜라면, 엄마의 엄마는 설거지를 하며 혹은 김치를 담그며 무심히 말했을 것이다. “강한 턱을 가진 남자가 썬 애인이다.”

유교의 어떠한 속담처럼,

아마도 그것의 남자는 유일하게 문명화 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

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나는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찬 큰 상자를 파헤 치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들의 눈을 들여다본다, 나의 선조들,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자궁심? 비밀스러움? 행복? 아빠의 사진 또한 있다, 흑백 사진 속, 한때는 호리 했던 그의 골격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폴리에스테르 버터플라이 칼라 셔츠와 나팔바지.

그는 여자의 호리호리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사랑을 위한 인상적인 포스터의 커플과 같이 여자로서의 엄마와 남자로서의 아빠는 둘 다 젊음으로 충만하여 미소짓고 있다. 나는 아빠의 턱이 강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가 없다.

“엄마....진형이라는 사람과..무슨 일 있었어?”

또 다른 쪽에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왔어.”

“그래..그리고?”

“그리고 끝이야.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었어, 그런데 나는 여길 왔고, 그는 그곳에 머물렀지, 우리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 그런데 어느날 그는 편지 쓰기를 멈추었고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을 듣질 못했어.”

“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알면 아빠가 화낼 거야!”

“근데 왜?”

“오...아가야...모든 남자는 같아, 그들은 네가 그들 전에 애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여자에게 있어서 오직 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싶어해.”

“오~~~그래서 그것이 엄마 결혼의 비밀이란 말이지, 응?”

“음, 너의 아빠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거야.”

“히..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그건 말이지....테이트를 하면할수록 나는 그가 더 편하게 느껴졌고...내가 뭘 하든지 그는 내 옆에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 그건 사실이야. 너의 아빠랑 결혼한건 잘한 일이야.”

내가 9살이었을 때 엄마에게 거짓말한 것을 들킨 적이 있다. 엄마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던 가게에서 집으로 일찍 돌아오신 순간에 티브이앞의 카펫에서 훈훈함을 느끼시며 먼지투성이의 그리고 손을 댄 적이 없는듯한 피아노를 보셨다.

“오늘 피아노 연습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엄마가 참을 수 없는 한가지는 속임수라며 한시간이 넘게 나에게 설교를 늘어놓았다.

“넌 내 믿음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나무로 된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나의.. 엄마의 손가락과 같은 손가락이 체르니를 연습했다, 메트로놈과 함께 완벽한 템포로 완벽하게 키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두시간 후 나의 손은 무디어졌다, 나는 조용히 살금살금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 방의 문은 살짝 열려있었다, 희미한 은빛 불빛이 내 발 밟는 카펫을 가르고 있었다. 내가 막 문을 두드리려고 했을 때, 나는 신문의 뒤적거림과 한숨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나는 바닥에 앉아있는 엄마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보관하는 상자가 그녀 앞에 열려져 있었다.

엄마의 무릎에는 이제는 노랗게 되 버린 한 뭉치의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빨간색과 푸른색 사선의 에어메일 표시로 뚜렷한...

엄마는 편지를 읽고 있었다, 때때로 매장 되 버린 기억들과 뒤섞인 희미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엄마는 한장한장 편지를 읽으며, 한장한장 빠뀌 신중하게 봉투로



그림 김안나

놓고 다시 상자로 돌려놓았다, 그녀의 흰색 드레스의 안전한 주름 밑으로..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나는 무한의 순간 속에서 바라보았다.

자넷전은 서울에 살고 있는 작가이자 선생님 입니다.

번역. 정현리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KOREAN CREATIVE WRITING

A woman

Janet Jun

Mother has only mentioned once the man she was in love with before coming to America and meeting Father.

"Never tell your husband you had Lover before him."

That was Mother's way of telling me that Father was ignorant of this other man. I wanted to ask what she meant by Lover. If her definition and mine were the same, if perhaps she meant Beau. Lover calls to my mind passion, sex, and violent desire—a far cry from the practical Mother and Wife. Perhaps she meant some of those things, I just wonder which ones.

"Stay a virgin." She held her hand close to my face, her index and middle fingers sticking straight up to making a Living V. I studied them cross-eyed.

That Living V was her parting gesture to me before I moved to New York. I'm sure there were other gestures, other words—perhaps I love you, I'm proud of you, a smile, a kiss, a squeeze of my cracked hands. But only those three words and the image of her lonely feminine fingers stay in my mind, not because of their obviousness or simplicity, but because they make me wonder about this other man, the one before Father.

smiling, full of youth, a striking poster couple for Love. I can't decide whether or not Father's jaw is strong.

"Umma...what happened with...with Jin-Hyung?"

There is a long silence on the other end of the line. Then, flatly, "I come to America."

"Ok...and?"

"And the end. We suppose to marry, but I go, he stay. I write and he write, back and forth. One day he stop writing. I never hear from him again."

"Oh..."

"Don't tell Appa!" She forces a laugh. "He be so angry!"

"But why?"

"Oh, honey...all men the same, they don't want to hear you had Lover before them. They like to think they the only one."

"Ohhhh...so that's the secret to Umma's marriage, ey?"

"Well, he never ask, so I don't tell him."

"Huh...Umma, why'd you marry Appa?"

"Oh...the more I date him, the more comfortable I feel...I know no matter what I do, he stand by me and love me. And it's true. I'm glad I marry Appa."

"Stay a virgin." She held her hand close to my face, her index and middle fingers sticking straight up to making a Living V. I studied them cross-eyed.

She refuses to call him her chut sa rang, and when I ask if Father was her first love, she laughs, "I don't know, I don't care, and I don't want to think about it!"

There is something hidden behind the Living V—a story, a love, a bruise. Then again, maybe I am just wishing there is because I want to believe that Mother was once like me—itching for a touch, raw lips, hot breath loosening my tired neck.

I hesitate. "What was his name?"

There is a brief silence as she digs into memory.

"Jin-hyung."

I repeat the syllables, owning them, making them mine. My insides churn, the name explodes within me. A figure flashes before me of a lone soldier, rebellious, his angled jaw twitching in concentration, dark thick eyebrows perfectly shaped, curving inward into a slightly crooked nose, his features sharp and defined, the muscles in his forearm and hands turning under tight smooth skin as he flicks his cigarette to the ground. He looks up at me, eyes filled with aching and the unspeakable. I know that look.

"Did you know a man with strong jaw is very good in bed?"

"Umma!" I gasped.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Mother just giggled as if to say, I may be your Mother, but I am still a Woman and can still teach you about sex.

I wonder how she knew that men with distinct jaw lines made good lovers, if it was just a bit of wisdom passed down to her; her own mother stating casually as they were washing dishes or pickling kim-chee, "A Man with a strong jaw is a strong Lover," like some kind of Confucian proverb. Maybe it was their way of saying that men aren't the only enlightened ones.

I am digging through a large box filled with aged photos. I study the eyes of the women, my forerunners, trying to read them. Proud? Secretive? Happy? Father appears too, in black and white, a polyester butterfly collared shirt and bell-bottoms adorning his once thin frame. He holds a Woman gently around her slender waist; Mother as Woman and Father as Man are both

Mother caught me in a lie when I was nine. She came home early from the shop that my parent's owned to find a warm spot on the carpet in front of the television and the piano still dusty, untouched.

"Did you practice piano?"

I nodded. She lectured me for over an hour, stating that the one thing she could not tolerate was deception.

"You betray my trust." Then she left me alone.

I sat on the wooden piano bench and rehearsed Czerny until my fingers, so like Mother's, could run up and down the keys flawlessly, in perfect tempo with the metronome. After two hours, my fingertips numb, I crept quietly toward Mother's room. Her door was open slightly; a thin sliver of light sliced the carpet beneath my feet. As I was about to knock, I heard a sigh, the shuffle of 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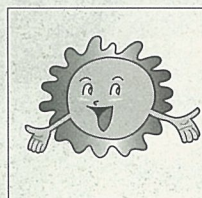
Through the crack I saw an outline of Mother sitting on the floor, the lacquered box that held her wedding dress open in front of her. In her lap sat a pile of yellowing envelopes, distinct with airmail borders of red and blue diagonal lines. She was reading a letter, a soft laugh mixed with buried memory escaping every now and then. I watched her for an infinite moment as she read letter after letter, replacing each one carefully back into its envelope and then back into the box, safe underneath the folds of her white gown.

Janet Jun is a writer and teacher living in Seoul.

Translation by Jung-Hyung Lee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

Art by Anna KIM



DDD Style page

what is sexy? a famous transgender underground Broadway musical finds its way into an upscale club in apgujeong? are men sexy? are women sexy?

남자는 세시아? 여자는 세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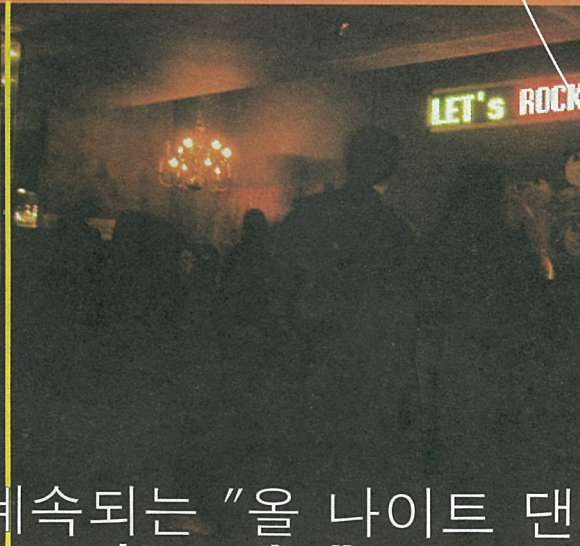
트랜스젠더 언더그라운드 브로드웨이 뮤지컬 아구정에서

for those who don't know "hedwig and the angry inch" is an off-broadway rock musical later adapted onto film, occasionally shown late nights on one of korea's movie channels. somehow a condensed "greatest hits" compilation of the broadway show made it's way to the "sugar club" boasting an all-korean cast of talented performers.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헤드윅'은 나중에 영화화 되고 가끔씩 한국의 영화 채널에서 늦은밤 방송되는 비 브로드웨이 록 뮤지컬이다. 어쨌든 브로드웨이 공연의 압축된 히트작 모음집은 압구정의 "슈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재능있는 송연자들을 캐스팅하게 되었다.

AND THE

왜?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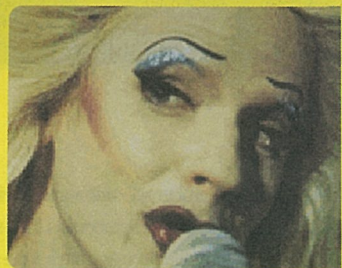
압구정 "슈거 클럽" 에서 계속되는 "올 나이트 댄스"
dancing the night away at apgujeong's "sugar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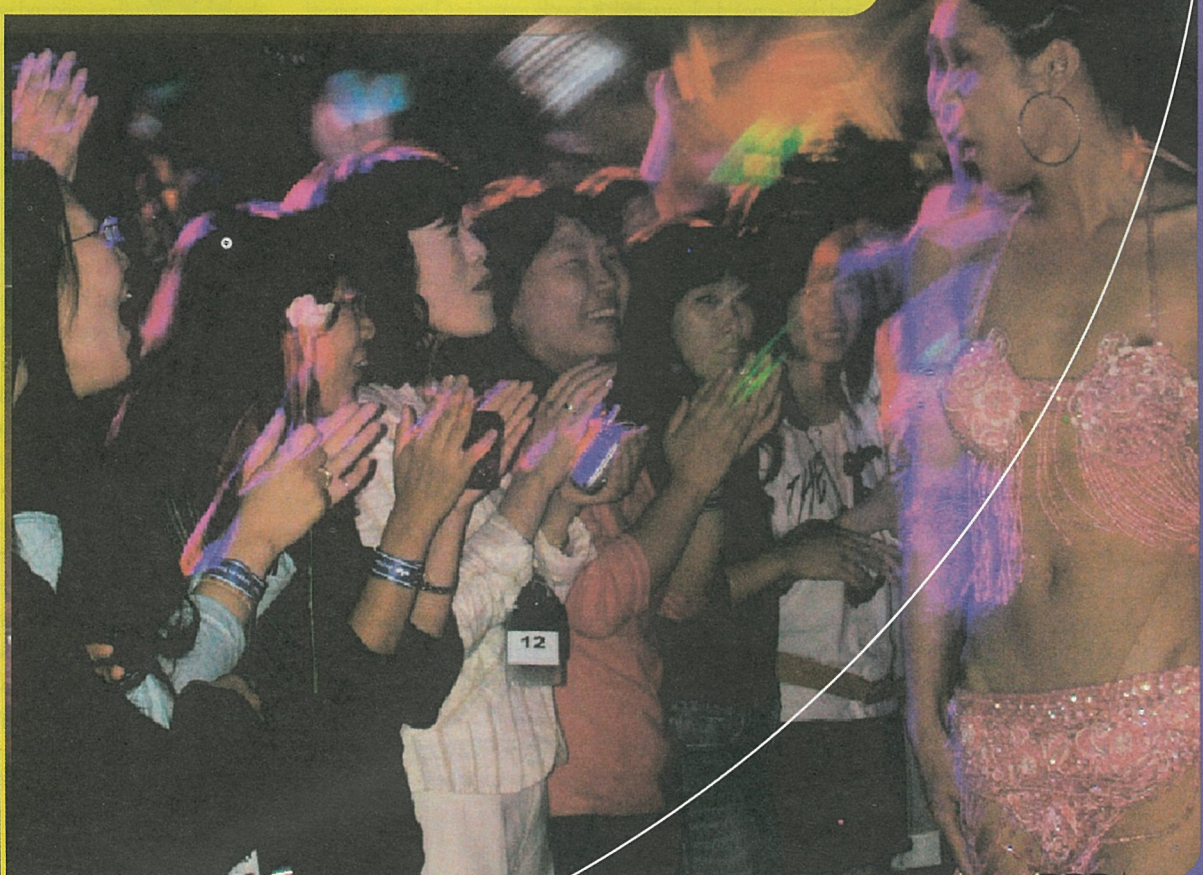
ooh la la...

울랄라...

a shot from "Hedwig" the film



"헤드윅"영화의 사진



fans clapping it up for the performer...

팬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

Falun Gong: Cultivation and Persecution

By John M. Rodgers with Sarah Choi



The Falun Gong is a group whose practice is based on a mixture of religion, meditation and exercise. The pillars of their practice are truth, compassion and tolerance. With its introduction to the Chinese society in 1992 by its founder, Li Hongzhi, Falun Dafa began as a silent giant registering as an exercise group under the qigong (pronounced chee-gong) ideology which is deeply rooted in Chinese society; qi means universal life energy and gong means cultivation energy. Falun Dafa generally translates to universal law of the Dharma wheel. And Falun Gong (as the group is more often called) is the actual Dharma wheel practice.

This practice focuses on breathing, meditation and slow motion calisthenics and is also connected to an ancient tradition of Xulian which emphasizes techniques to "cultivate" the mind and body as a means of staying fit and healthy. Such methods may have paleolithic roots.

The Falun Gong originally enjoyed the Chinese government's endorsements and praise as it was shown to improve the health of practitioners thereby reducing health care costs. However, as the group's success and popularity burgeoned and Li Hongzhi's 1995 book *Zhuan Falun* became a national best seller seeds of suspicion began to sprout in the government and academic sectors. Consequently, in late 1996 and early 1997 the first ripples of the impending castigation and persecution of the Falun Gong appeared when an article denouncing the group appeared in an official Chinese newspaper and the Public Security Bureau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organization.

What followed over the next two years led to increased harassment of practitioners, the April 25, 1999 passive demonstration by more than 10,000 practitioners at the government center in Beijing and the pernicious June 10, 1999 establishment of the "610 Office" by President Jiang Zemin. The 610 Office was to "...specialize in handling the 'Falun Gong' issue," according to Jiang. Who reportedly also claimed, "no measures to excessive." And little more than a month later, on July 19 Jiang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that Falun Gong was banned. So the crackdown was initiated and a dark cloud of government suppression began building over Falun Gong. What also became an ironic enemy of the group was one of their beliefs-truthfulness. Their honesty required that they admit their affiliation to anyone who inquired. Most often this was a Chinese official who would then detain them.

Here in Korea the Falun Gong has a rather large following that may reach above 50,000 members (unconfirmed reports say more than 100,000 *Zhuan Fala* books have been sold). However, it is hard to give a spe-

cific and reliable figure because its members do not register with any one person or a central office. Rather they freely practice and associate with other members as they see fit. As I found during my own look into the group, the members here tend to quietly congregate for the sole purpose of practicing the exercise. They also exhibit an enthusiastic and welcoming demeanor to any individual who is curious about the group and its practices. Many new followers are just individuals who approach practitioners inquiring about what they are doing. And there is no shortage of resources to teach and prepare new followers-Seoul alone has 65 indoor and outdoor practice sites.

One afternoon I found myself on the 8th floor of a business building in central Seoul in one such room that was the size of a studio apartment. The door was left wide open, a large mat laid in the center of the room, a sprawling poster outlining each movement of the exercise covered a wall on the right and a big screen TV showing a single man performing each stage of the exercise stood at the rear. When I arrived a middle aged man was already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TV and being advised by a Falun Gong member who corrected and fine-tuned his movements. I had been brought to the room by another member, Chang Sik Lee, who had granted my request to try the exercise and we quietly shed our shoes and moved to the mat. The very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this is not easy." The complete five part exercise takes 2 hours with half of it spent in a cross-legged sitting position that makes the usual Korean sit-on-the-floor-for-a-meal seem utterly painless and simple. "It often takes foreigners 2 to 3 years to be able to sit in the position," said Lee. Both heels are to be pointed up or skywards-if you doubt the difficulty try it. The point (for those who wish to know but haven't read *Zhuan Falun*) tends to be something that followers belabor over putting into words.

In Buddhism the soles of both feet, the two palms and the top of the head need to face upward in order to achieve the Lotus position. This is called the Five Centers Facing Heaven in Falun Gong. The universe and us are full of positive and negative energy and the exercise helps us to expel negative energy while absorbing the immense amount of positive energy that the universe produces. This is a stage of cultivation, according to Founder Li. But, as I said, none of this is a quick fix or what appears to be a gimmick- a solid commitm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is necessary. Followers say that one should not think about the individual exercises or the actual purpose of them (something I found difficult to do) but clear the mind and focus on nothing. Whenever I asked a question about "why" we did something I received a look that seemed prescient yet still curious. PART TWO OF THE STORY COMES NEXT ISSUE.

법륜공 : 수련과 박해

글쓴이 : 존엠. 로저스, 세라 최

법륜공 (Falun Gong)은 신앙, 명상, 수련의 융합을 수행의 기초로 하는 수련 단체의 이름이다. 이들의 수행의 기본 덕목을 진(참됨), 선(선함), 인(인내심)으로 삼고있다. 1992년 창시자 이 홍지 (Li Hongzhi)가 중국에 처음 소개함으로써, 법륜 대법 (Falun Dafa)은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기공 (기공으로 발음됨) 철학 하에 하나의 수행 단체로서 조용하고도 거대한 자리매김을 시작하였다.

'기'란 우주적 생명 에너지이며, '공'이란 연마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법륜 대법은 일반적으로 법륜(Dharma wheel)의 우주적 법칙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륜공은 사실상의 법륜 수행법이다. 이 수행은 호흡과 명상, 느린 동작의 체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심신을 '연마'하는 기술을 강조하는 Xulian의 고대 전통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한 방법은 아마도 구석기 시대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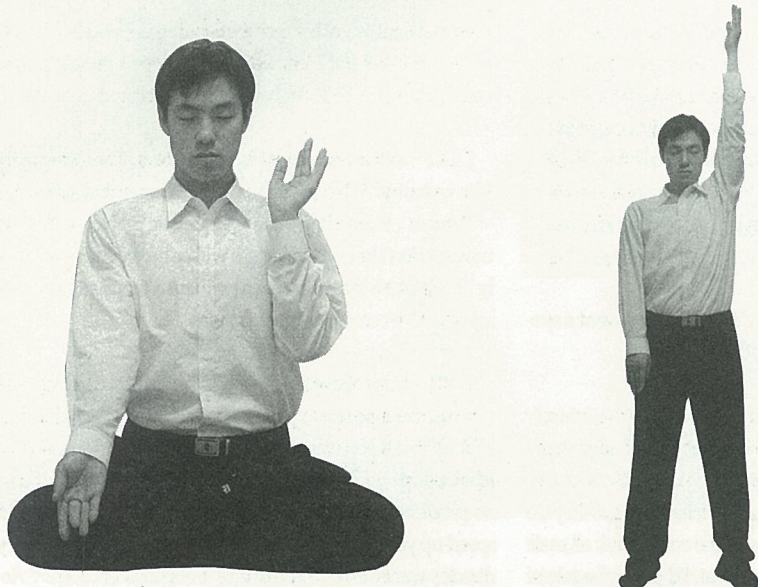
법륜공은 처음 수행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므로써 국민 의료비 지출을 감소 시킬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 정부의 승인과 호평을 누렸었다. 이 그룹의 성공과 인기가 급성장하고, 1995년 이 홍지의 책 '전법륜'(Zhuan Falun)이 국가적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정부와 학계의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1996년 후반과 1997년 초반 법륜공 단체에 대한 비난 기사가 중국 공식 언론에 게재 되면서 법륜공에 대한 징계와 박해의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국가 안전부는 이 조직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년간은 수행자에 대한 탄압의 증가, 1999년 4월 25일 만 여명의 수행자의 베이징 정부 청사 앞 소극적 시위, 결국 1999년 6월 10일 중국 주석 장쩌민 (Jiang Zemin)의 '610사무소' 창설로 이어졌다. 그에 의하면 '610사무소'는 '특히 '법륜공'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남짓 후인 7월 19일 결국 법륜공 금지 조치가 선포되었다. 그렇게 탄압은 시작되었고 정부 탄압의 검은 구름이 법륜공 위로 드리워 지게 되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믿음 중 하나- 진(진실함)-이 그들의 또 다른 적이 되었다. 그들의 정작함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누구에게나 그들이 입회자임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 입회자임을 시인 받은 후 그들을 구금하려 하는 중국 기관원이었다.

이곳 한국에서 법륜공은 50,000명 가량의 상당히 많은 멤버를 확보 하고 있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전법륜'(Zhuan Falun)은 100,000부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회원이 개인이나 단체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믿을만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수련을 하거나 편의에 따라 다른 회원들과 교류한다. 필자가 탐방 과정에서 본 바로는 멤버들은 수행 연마라는 단 한가지 목적으로 조용히 모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수행에 관심을 보이는 어떤 개인에게든 열의와 환영의 태도로 맞아주었다. 많은 새로운 멤버들은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해 묻기 위해 수행자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새로운 멤버를 가르치고 연습시킬 자원에도 부족함이 없다. 서울에만도 65개의 실내외 연습장이 있다.

어느 오후, 필자는 서울 한복판의 어느 비즈니스 빌딩 8층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 크기 만한 한 연습장을 찾았다. 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방 한가운데 넓은 매트가 깔려있었으며, 오른쪽 벽엔 수행의 각 동작을 보여주는 커다란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뒤쪽의 대형 TV스크린에서는 한 남자가 수행의 각 단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필자가 도착 했을 때는 중년의 한 남자가 이미 TV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그의 동작을 세심하게 고쳐주는 법륜공 수련자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다. 나는 다른 수련자 이창식씨에게 인도되어 방으로 들어갔고 그는 연마 과정을 보여달라는 내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매트로 올라갔다. 처음 내게 떠오른 생각은 "이제 장난이 아닌데(쉽지 않군)"이었다. 완전한 5단계 수행은 2시간이 걸리는데 그 중 절반 가량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해 보일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자세인 책상다리로 시행된다. "그 자세로 앉는 데에는 외국인은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이씨는 말했다. 양쪽 발바닥이 모두 하늘을 향해있어야 한다.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 한번 직접 해보라. (알고 싶어는 하되 아직 '전법륜'을 읽지 않은 사람을 위해) 멤버들은 그 요점을 공들여 말하는 것 같았다.



The "strengthening divine powers" exercise? the most difficult and advanced of the five exercises. The sitting stance must be held for one hour.

신통력 강화 수련 (신통력 강화 수련)-가장 고난도이며 5단계 수련 과정(5작 공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수련법. 가부좌를 1시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The "penetrating the two cosmic extremes" exercise. A purification exercise where cosmic energy is channeled through the body expelling negative energy. It is the third exercise and takes 10 minutes.

관통 양극법 (우주 양극의 기를 관통)-우주의 기를 신체를 통해 관통시켜 체내의 나쁜 기를 몰아내는 정화 수련법. 3단계 공법이며 10분 소요.



A demonstration of torture techniques used by Chinese officials against Falun Gong practitioners near Gangnam Subway Station, Seoul.

중국 기관원들이 법륜공 수행자들에게 자행한 고문 수법 재현 -서울 강남역 근처

불교에서 결과부좌를 취하기 위해서는 양쪽 발바닥과, 양 손바닥 그리고 머리의 뒷부분이 위를 향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법륜공에서는 "다섯 중심이 하늘을 향한다" (Five Center Facing Heaven)라고 한다. 우주와 인간은 음과 양의 에너지로 충만하고 수행은 우주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음의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돕는다. 창시자 이홍지에 따르면 이것이 연마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루 아침에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의 성실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수련자들은 개별적 수행이나 그것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나로서는 힘든 일이었다) 마음을 맑게 하며 무념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한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어떤 통찰력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받곤 했다. (2부가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Korean and Chinese practitioners doing the divine power strengthening exercise at Maronie Park in Hyehwa-dong, Seoul.

신통력 강화 수련 (신통력 강화 수련)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수행자들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1. political reform: 정치 개혁
2. Paleolithic roots: 구석기 시대적 기원
3. seeds of suspicion: 의혹의 씨앗
4. impending castigation and persecution: 임박한 징계와 박해
5. crackdown: 탄압
6. extensive surveillance: 광범위한 감시
7. clandestine operation: 은밀한 조작
8. sole purpose: 유일한 목적
9. fine-tuned movements: 정교한 동작



떠오르는 영화계의 신인배우 최반야씨와의 인터뷰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셨나요?
 사실 저의 전공은 건축입니다. 대학에서 연세 극예술 연구회라는 연극 동아리에 들게 되었고, 그 곳에서 연기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등 많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기는 제가 해본 모든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었어요.

연극무대에서 영화로 전향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처음, 명필름에서 주최한 영화 "욕망" 공개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버스, 정류장"의 감독님이 저를 보시고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하셨어요. 그게 저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사실 "욕망"에서는 작은 비중의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는 중요한 조연이었어요.

기생 역으로 출연했던 영화 '스캔들'과 새로운 영화 '러브토크', '버스, 정류장'에서의 역할에서처럼, 어느 특정한 역할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분명한 것은, 감독들이 저를 캐스팅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창녀나, 기생을 원할 때였습니다. 좀 다른 것을 원했다는 것은, 그녀의 신분은 창녀이지만 그녀의 생각이나 인간으로서의 면모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일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연기한 창녀는 주인공

제 10회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의 취재로서, 우리는 그녀의 성실성과 재능으로 스타덤의 대열에 오른 진취적인 여배우, 최반야씨를 인터뷰했다. 많은 관심이 대스타들과 감독들에게 주목 되고 있는 반면에, 1면을 장식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떠오르려는 시도에 있다. 올해는 최반야, 그녀에게 있어 세 편의 , 개봉을 앞두고 있는 특작에 출연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이미 상영중인 ' 사랑나와 이번 국제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가졌던 두 영화, '러브토크' 와 '여자 정해'가 그것이다. '러브토크'는 한국의 이민경험에 대한 이야기로서, 작년 부산 국제 영화제의 '새로운 물결'부문 에서 '여자 정해' 로 감독상을 수상한 이 윤기 감독에 의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제작되었다. 최씨가 주연한 또다른 영화 ' 달려라 장미'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코메디 작품이다. 한국의 관객들은 이 영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믿고,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감독들이 독특한 면모의 창녀나 기생을 원했기 때문에 저를 캐스팅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해보고 싶나요?
 저는 활동가, 한비아처럼 연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비아씨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녀처럼 세상에서 선한 에너지, 좋은 정신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인물이 무언가를 해내거나, 결국에는 씩씩하게 극복해내거나 한다면 어떠한 역할이든, 어떠한 장르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남자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지만, 여자 주인공들은 별로 그렇지못한것 같아요. "모래시계"의 고현정 역할 보다는, "여명의 눈동자"의 채시라 역할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LA에서 촬영한 '러브토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연기하는 느낌이 어땠나요?
 때로 영어로 연기할 때가 더 낫고 자유롭게 느껴져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좀 더 표현적이라서 그 리듬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쉬운 면이 있거든요. 영어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예로, 한국 사람도 너무나 평이하고 맛있는 서울 말로 연기할 때보다 지방 사투리로 연기할 때 감정적으로 쉬운 면이 있어요. 저는 원어민이 아니지만, 외국어 공부를 좋아해서 계속 공부해왔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

어서 좋았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일하는것에 있어 어려운 부분과, 신인여배우로서 갖게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요?
 첫번째 문제는 우선 경제적인 것이지요. 한 작품을 끝내고 나면, 다음 작품 때까지 얼마나 쉬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매니저 없이 에이전시만 통해서는 적합하고 좋은 일을 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들에게 다소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감독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어떤것인가요?
 당신이 제작자나 감독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해서 소위 추잡한면으로 질문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 여배우로서, 당신이 성인이라면 문제될 거 없다고. 저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느냐구요? 때에 따라 다르지요. 저로서는 별로 드릴말씀이 없군요. 때로 그런 생각은 해보기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처신했었더라면 누가 알아, 내가 지금쯤 수퍼스타 되어있을지 (키득키득)'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연기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일할 생각이 있나요?
 물론이지요!!

Interview with an Emerging Actress : Choi Banyah

As part of our up-coming report on the 10th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 interviewed an up-and-coming actress developing her talent and preserving her integrity in the jungle of stardom. While so much attention is slavered on the big stars and directors, the real story is with those whose names are not on the front pages but are struggling to emerge. This is a big year for actress Choi Banyah as she has participated in three feature films by acclaimed directors. The first, Blossom Again, was released last month, while her other two films had their premier showing at this year's PIFF. Of these latter, Love Talks was filmed entirely in Southern California and is about the Korean emigre experience. It was directed by Lee Yoon Ki who won the New Currents 1st prize at last year's PIFF for This Charming Girl. Choi's other film at PIFF is Way To Go, Rose, a comedy about marriage and divorce in which she plays the title role, her first time as lead actress. Directed by Kim Eung-su, Korean audiences received this film warmly.

By Nigel D'Sa

DDD : How did you get into acting?
Banyah : Actually my major was architecture. I entered the theater club in my university and I was so happy in that club that I could act, write, and make music, and everything else. I felt acting was the most fabulous thing I'd ever done.

DDD : How did you make the transition from theater to film?
Banyah : At first I took an audition at Myong Films for the movie Desire. But in that audition the director of Bus, Stop saw me and cast me for an important role in that film. That was my debut movie. Actually I got a minor role in Desire but Bus, Stop was my first important supporting role. So it was a nice twist of fate.

DDD : In your new film Love Talks, and in Bus, Stop and Untold Scandal you play a gisaeng or prostitute... so do you have any concern about being type-cast?
Banyah : Well, I'm sure they cast me when its not a normal prostitute or normal geisha, when the director wanted a different one - her position is prostitute - but she's better than that - her thoughts and qualities, etc. For example in Bus, Stop the prostitute I played was the only one

whom the main actor trusted and talked with. When they want a special or unique kind of prostitute or gisaeng they cast me.

DDD : What kinds of roles would you like to take in the future?
Banyah : I want to act like an activist, like Vi-ya Han. I adore her. I want to share good energy and good spirits with people like she does in this world.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role it is, as long as they do something or overcome something bravely in the end. I think all male heroes do that but heroines don't usually do that. I'd prefer the role of Chai She-ra in 모래시계? to the role of Go hyeon-jeong in 여명의 눈동자?(Hour Glass). I don't care about the genre or style as long as the character has a challenge and gets through something.

DDD : In Love Talks which is set in LA your part was bi-lingual, you spoke both in English and Korean, so how did it feel acting in a second language?
Banyah : Acting in English sometimes feels better and feels much more free because I think English is more expressive - its easier to express something through rhythm - its very rhythmical - for the same reason when a Korean acts with a Korean dialect its much easier t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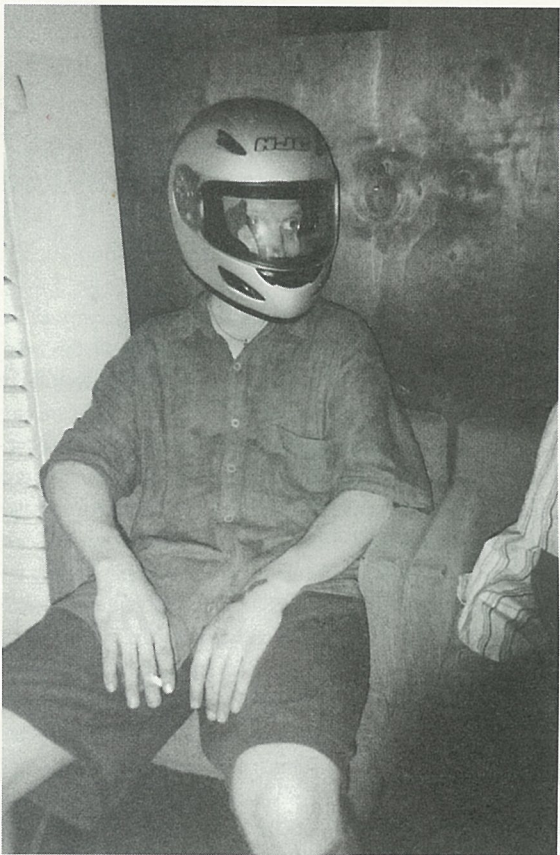
with the Seoul accent because the Seoul accent is so flat. I'm not a native English speaker but I learned and developed myself because I loved learning English. So I was happy because I could use what I learned.

DDD : What are some of the difficulties of working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hat problems does an emerging actress face?
Banyah : So the first thing is economic problems. After finishing a movie, I don't know how long it will be before my next job. So mentally I can't take a break. In Korea, without a manager and using only an agency, it isn't easy to get proper roles.

DDD : How about the personal difficulties, dealing with directors who use their power to pressure an actress into relationships...?
Banyah : If you want to ask me, in an indecent way, about an actress' relationships with directors or producers I will say : "for an actress it's no problem if you are an adult and you can manage it and it might speed up your career... and that doesn't mean accepting everything the director wants; how you manage it depends on you..." As for me, I don't have much to say. Sometimes it hit upon me : if I had managed that a bit more smartly, who knows, I might be a superstar by now." (giggle - giggle) But its not a big deal.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is just that I'm growing up in my acting.

DDD : Would you consider working in Hollywood?
Banyah : Why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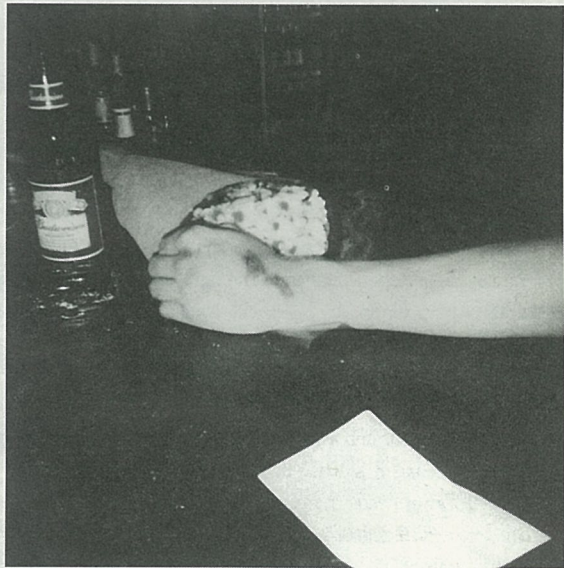
ITAEWON NIGHTS

By anonymous

What happened? Here I stand, spat out of the belly of the dark corners of Itaewon, its dues freshly marked upon my knees, hands, and face. Somehow my guitar is still slung over my shoulder. Yet, my wallet with money and identity cards are now missing and my mind races to put together the pieces of last night. The pieces lay scattered around and

I bumped into a sexy young Russian girl with a bottle of soju in her hands. She smiled at me and well, why not join her for a few drinks?

unfortunately, some pieces are missing. The evening started out as normal. I remember drinking beer with friends and letting music flow through the sound system. We just let the music carry us away, free of care, free of any sense of the darkness that perpetually lay quietly awake outside the doors of the Big Electric Cat live music club in Itaewon. After the jam session ended, I joined a friend for a few more drinks down the street then we departed. I bumped into a sexy young Russian girl with a bottle of soju in her hands. She smiled at me and well, why not join her for a few drinks? We wandered through the narrow streets, up a hill, and sat down together upon a small wall. We are flirting, chatting and sipping the Korean firewater. Two men from Nigeria came up the hill and stopped to talk to the girl. They didn't really look at me and the vibe seemed all right. Two men speaking French with this young girl from Russia; it seemed international enough. Next the girl asked me to take a ride on her scooter, she had an extra helmet for me so I got on and that's the last thing I remember. I woke up with the sun, on the side of a road, in a ditch with my guitar 10 feet from me. Now sitting down to write this with last night's reminders still oozing from my body, I am waiting for a friend to come help me out with a few bucks so I can get a meal and maybe a fresh beer. I want to take last night and lay it all to rest. I guess it wa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Itaewon decided to show me the depths of its dark side. I am okay though and I'll soon be going back to play guitar, yes, I lost my wallet, my memory and some blood... but I still have my guitar.



The translator "Yuni" studies America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t Hongdae U.



이태원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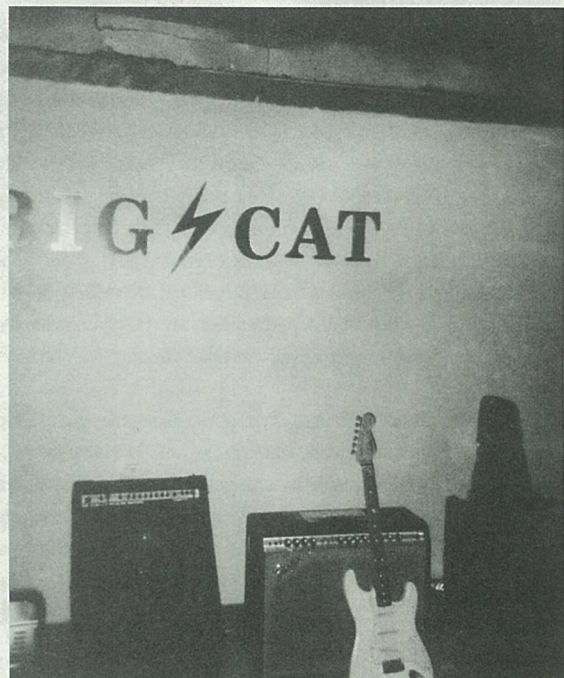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태원의 어두운 골목의 내부에서 내뿔어져 나는 여기에 서있고 지볼되어야 할 보상금은 내 무릎과 손과 얼굴위에 증거로 남아있다. 어찌된 일인지 내 기타는 여전히 내 어깨에 걸쳐 매여있다. 그러나 돈과 신분증이 든 내 지갑은 잃어버리고 내 마음은 지난밤의 기억들을 모으는데 전력한다. 그 기억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고 불행히도 몇 가지 기억들

나는 손에 소주 한 병을 든 섹시하고 젊은 러시아 소녀와 부딪혔다. 그 소녀는 나에게 미소 지었고 뭐 그 소녀와 몇 잔 기울여도 괜찮지 않은가?

시는 중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두 명의 남자들이 언덕을 올라왔고 소녀가 이야기 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 그들을 사실상 나를 보지 않았고 인상도 좋아보였다. 두 남자는 러시아에서 온 이 어린 소녀와 불어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그 후 소녀가 나에게 그녀의 스쿠터에 타도록 요청했고 그녀는 나를 위한 여분의 헬멧을 가져서 나는 스쿠터에 탔고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10피트 떨어진 곳에 기타가 있고 날이 밝아오면서 만취상태에서 도로가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지난밤의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려 지금 앉아있지만 나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와서 식사와 신선한 맥주를 얻을 수 있는 나를 구제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난밤을 꺼내어

은 상실되었나보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한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근심을 떠나서 이태원에 있는 'Big Electric Cat'이라는 라이브 음악 클럽의 문밖으로 조용히 깨어있는 어둠의 감각에서 벗어나 음악에 우리를 맡긴다. 즉흥 재즈 연주회가 끝난 후 나는 길 아래편에서 친구와 만나 술을 조금 더 마시고 나서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손에 소주 한 병을 든 섹시하고 젊은 러시아 소녀와 부딪혔다. 그 소녀는 나에게 미소 지었고 뭐 그 소녀와 몇 잔 기울여도 괜찮지 않은가? 우리는 언덕 위에 좁은 길들을 해매다가 낮은 담장위에 함께 앉았다. 우리는 시시덕거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산 화주를 조금씩 마

모두 잠재우기를 원한다. 나는 이태원이 그 어두운 면의 심각성을 나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하기 전에 밤늦은 시간이 문제였다고 추측한다. 나는 괜찮



고 곧 기타를 치러 돌아갈 것이다 다. 나는 지갑과 기억과 약간의 피를 잃었지만 나에게에는 아직 기타가 있다.

번역가인 유니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홍대에 재학중이다.



FIGHTING FOR THEIR BIRTHRIGHT:

Respect and Rights for the disabled

By Andrew Baxter and Eunsook Lee with Mr. Moon Hi. Lee

A couple of years back I was sitting on a bus one afternoon, aimlessly looking out the window when a middle aged intellectually handicapped man suddenly sat down next me. We looked at each other momentarily before he said in a booming and resonant (1) voice "Welcome to Korea, my name is Jung-Pil how are you? Where do you come from?"

Jung-Pil turned out to be one of those fleeting (2) characters you meet rarely in a lifetime who just stays on the mind. He didn't ask me anything profound or engage me in any piquant (3) conversation but his sincere interest and enthusiasm made me wish that I had had even a quarter of his loving attitude towards life.

Another thing which stayed on my mind from that day though were the disdainful (4), embarrassed and plain ugly looks that he got from other passengers, culminating in one elderly gentleman saying to me after Jung-Pil had alighted "I am sorry that he bother you."

Oh yeah?

No one can really quantify how many people with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live here, but it is likely that it lies roughly halfway between the government estimate of 1.6 million people and activists figures of 4.5 million. It is hard to get an accurate number though because so many of the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are kept out of sight from everyday society. They are victims of extreme social conservatism which still dominates in this new age of the information explosion.

Two common misperceptions that activists hear are, "It's a spiritual punishment from God", or "He's like that because the demons have cursed him for the evils of his ancestors." A fair proportion of those who derive their enlightenment from the sciences commonly believe that being handicapped is caused by bad genes, a poor constitution or even the rule of natural selection. Maybe so, but for the 13th wealthiest and one of the most highly educated nations on earth it is totally illaudable (5) and is simply a shame.

When not shunned, the physically and mentally impaired, like other disadvantaged groups the world over, are also regularly exploited. The discovery of an illegal boarding house in Anyang city earlier this year is one such example. The owner charged residents with an entrance fee, claimed their welfare, solicited donations from relatives and yet only used a miniscule (6) proportion of the funds in providing a woefully inadequate service. Maybe even worse though, it was ignored by a local governmental agency. This is an example of dereliction of duty and plain bureaucratic disinterest in those charged with overseeing the welfare of such people. It would be pretty safe to say it is widespread, the powers that be rarely listen to low paid workers, the impoverished and similar groups.

One group is listening though, listening and taking the fight to these agencies, politicians and anyone who has the clout (including the public) to bring about the long overdue changes needed. Changes which if realized will allow the physically and mentally impaired to realize every human's birthright, the guarantee of dignity and the chance to climb the ladder of opportunity to a better life. That group is the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KODAF), which "DDD" recently visited one balmy (7) autumn evening to speak to Mr. Moon Hi Lee, director of the group's policy development division.

"KODAF was formed in 1998 to fight for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in Korea. We are an umbrella group (8) representing twenty one organizations ranging across a whole spectrum of disabilities from mute people to an accident victims group. A lot of groups within our body have different issues to face, so sometimes the groups act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and when there is a common interest they come together."

Because there are so many unique groups to assist, KODAF faces the very onerous task of having to fight many battles on many fronts, but this doesn't seem to faze them at all. "There are a lot of discrimination issues that we are eagerly examining at the moment" says Mr. Lee. "For example our mute members are unable to get truck licenses even though they can see and have the ability to drive, our deaf members have to pay a full television license fee even though the Korean language programs aren't subtitled (therefore futile) and we are involved in lobbying the government on behalf of all our members to produce legislation which ensures that disabled people have the right to live normal lives along with numerous other things."

Unless you are a wealthy business group, or well connected via family or regional links, lobbying government and politicians is a difficult task. KODAF seems to have what it tak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Mr. Lee continues, "The government needs to listen and then act on the

"At the age of about five", says Mr. Lee "able bodied children start realizing that disabled children are different and this is when the teasing and bullying starts, so we need to have programs which teach kids to accept disabled children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t the moment most of the programs which deal with disability awareness and education are run by local government welfare offices, which are under-funded, and irregular. We want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education course an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to all levels of students from kindergarten to university. Also one of our major projects this year is to plan open festivals where members of the public can meet disabled people to help break down barriers and dispel myths."

Maybe education about the disabled is something that kindergartens and schools would be better suited to do. To spend time on educating students about the rights and dignity of the disabled (teaching love and respect) than wasting time on meaningless things such as the Dokdo issue (hate), which fails to enhance the quality of any of their fellow countrymen's lives in any tangible way.

KODAF is a remarkable organization which has made some small inroads since its inception seven years ago. It is struggling against many cultural and political barriers and still has a lot of hard battles to fight. Yet things are slowly changing in Korea and with groups like them on the scene it can only change sooner rather than later. Give it a few short years and I'm sure this is what will be happening.

A couple of days back I was sitting on a bus one afternoon, aimlessly looking out the window when a middle aged intellectually handicapped man suddenly sat

down next me. We looked at each other momentarily before he said in a booming and resonant voice "Welcome to Korea, my name is Jung-Pil how are you? Where do you come from?"

Just as the words came out of his mouth an elderly man sat behind us and said "Hey Jung-Pil long time no see. Where have you been? You haven't been round to our place recently. Hey who's your friend? So tell me why not?"

01. Resonant: Something which is deep and rich in sound, exemplified by a Baritone opera singer.
02. Fleeting: Something which passes or fades quickly.
03. Piquant: Something which is interesting, stimulating or argumentative.
04. Disdainful: Extreme disgust with somebody or something.
05. Illaudable: Something which is not to be proud of and worthy of strong criticism.
06. Miniscule: A tiny amount, usually measured in very small fractions.
07. Balmy: Mild and pleasant weather.
08. Umbrella Group: An organization which represents or assists a number of separate smaller groups all with a common interest.
09. Fledgling: Something which is new and unprecedented.
10. Impasse: A situation which is very hard to resolve.

Andrew Baxter (Australian) and Eunsook Lee (Korean) are husband and wife. They are concerned about many of the injustices which plague both of their countries.

Mr. Moon Hi Lee is the Director of KODAF's policy development division. The website for his organization is www.kodaf.or.kr



advice and recommendations of the disabled and their primary caregivers, because they know what the needs are and what resources are required to meet them. However instead of this grass roots to top type of structure Korea has a very rigid top to bottom model, where groups of politicians, civil servants, academics and medical administrators make major assumptions with little or no consultation sought from their target groups. There is also a power play going on between these top people which often results in the rare good program being dropped because of accusations of cost overruns and inefficiencies etc. At the end of the day it all means less resources and assistance being made available out there in our society."

KODAF is keeping up the fight, hoping that eventually they can work with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rather than in conflict with them. "We don't think we have a very supportive government or politicians", says Mr. Lee "but we still want to work with them. Our progressive activist group frequently visits politicians and government departments to try and start friendly negotiations. When we make successful contacts we suggest ways things can be improved by making recommendations about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welfare etc." One example of this promising fledgling (9) relationship stems from a recent plan to build a new residential area for disabled people in Seoul. The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he project fearing that their house prices will go down, and the government is now unsure where to proceed. KODAF is currently planning a recommendation for the authorities to solve the impasse (10), which if accepted may cement a stronger partnership between the groups in future.

Whilst genuine and full governmental/political co-operation are crucial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y are not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chieving long term and meaningful change. This can only come about through a major change in society's attitude, of which public education needs to play the paramount role.

최 생존권을 위한 투쟁

한국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존중과 권리

글쓴이: 앤드류 백스터, 이은숙, 이문희

2년전 어느날 오후 나는 버스에 앉아 아무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내 옆자리에 앉았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서로 마주보게되었고 그는 갑자기 찌렁찌렁하고 큰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내이름은 정필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정필씨는 인생에서 스쳐지나가는 사람중에서도 오래도록 마음 속에 남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내게 어떤 심각한 질문을 던진것도 아니고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 낸것도 아니지만, 어떤 그의 순수한 관심과 열정은 나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향한

열정적인 태도의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갖고싶게 만들었다.

그날 또 한가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것은 다른 승객들이 그에게 보내는 경멸적이고 당혹해하는 표정들이었고 또한 정필씨가 하차한 후, 급기야는 한 노인이 내게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저런 사람이 자네를 귀찮게해서...”라고까지 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대략 정부 추산 160만명 과장애인협회 추산 450만명의 중간쯤으로 추산되어진다.

많은 수의 신체적, 정신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힘들다. 그들은 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여전히 극단적인 사회 속 전통주의 사상에 지배당하는 희생자들이다.

장애인에 대한 2가지 공통된 잘못된 편견이 있다. 한가지는 하늘이 노해서 내려진 벌, 또다른 한가지는 그의 조상을 잘못 모셔서 후손에게 저주가 내려져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통 그런 결함이나 장애는 나쁜 유전적요소나 신체조직의 결함, 또는 자연법칙에서 근거한것이라고 믿고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세계에서 13번째로 부강하고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장애를 갖고있다는 것은 격려해 줄 일이 아니라 그저 감추고만 싶은 일로 되어버렸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계의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올해 초 안양에 있는 한 불법 장애시설을 발견했는데 그 소유주는 시설 이용료를 받고, 정부에는 지원금을 청구하고 가족들한테는 웃돈이나 기부금을 요구하면서도 그 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로 지출하는데만 사용돼왔다.

더욱 심각한것은 지방관할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묵과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의 명백한 직무태만이고 관료 정치의 무지함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사람과 같은 힘없는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한 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서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나 정치가들과 맞서 싸우고 있고, 비록 변화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릴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변화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존엄성의 보장,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으로, 어느 선선한 가을저녁 우리DDD잡지는 이 단체의 정책실장 이문희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 단체는 1998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전국의 21개 단체들을 대표하는 본부로서 농아에서부터 산재장애그룹에 이르기까지 전체 장애인의 대표단체 임니다. 많은 종류의 그룹별로 다른 이슈에 직면해 있어서, 때로는 그룹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공통 관심사가 있을때에는 모두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도와주어야 할 또다른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과 분야 전반에 걸쳐서 맞서 싸워야

하는 큰 부담감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당황해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최고현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농아들은 잘 보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트럭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들은 우리에게겐 하찮은 문제일지 몰라도 TV시청하는데 자막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TV시청료를 자동납부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했을때 일반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로비를 하고, 입법제정이 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많은 대기업이나 부유한 가족, 종교단체에 관련되



어 있지 않다면, 한국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일차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의 충고나 권유를 잘 경청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당사자들만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책이 요구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향식 전달방식 대신에 하향식 전달방식이 원고하게 답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담당 공무원들, 학계의 학자들,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들과의 논의없이 그들과 부합된다고 여개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권력이 우선으로 적용되기 일주어서 결과적으로는예산초과나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등으로 유익한 프로그램들은 외면되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장애인을 위해 우리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방책이나 원조는 실행되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싸워나갈 것이고 결국에는 정부기관이나 정치가들과 충돌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정부나 정치가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해나가길 바랍니다. 급진적인 행동 그룹들은 종종 정치가나 정부기관들을 방만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벌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의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때, 장애인고용추진제도나 차별대우폐지, 복지혜택문제들은 점차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예로 시작단계이지만 서울의 한 거주지역에 새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주택가격하락을 우려해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기관은 지금 어디에다 계획을 실행시켜야 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현재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장래에 우리와

관계당국의

좀더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부나 정치가들의 진정한 전폭적인 협조가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일깨우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성과와 진정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필요로하는 대중교육이 밑바탕이 된 사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실장님이 계속해서 말하길,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장애아들이 그들과 다르다는것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장애아들을 놀리고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아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하며 대할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는 프로그램이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지방 동사무소나 구청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 교육사업과 관련된 것뿐이고 거기에서 불규칙적이고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수준부터 대학교학생 수준에 이르는 자세한 정보제공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해를 도울수 있는 기구를 원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단체의 중요한 계획중의 하나는 장애인들이 일반 대중들과 만나는 축제를 열어서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잘못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시작되어지는것이 적합할것이다.

독도문제와 같은 일본에 대한 증오가 담긴 사회기여에 도움이 안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권리에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그렇지않다면 현실사회에 있어 그들 자신의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한국장애인 총연맹은 7년전 처음 결성된 이후로 서서히 조금씩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려가는 주목할만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많은 문화적 정치적 장벽과 맞서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아직도 맞서싸워야 할 일들이 산재해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런분야에서 그들과 같은 단체들이 더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준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

이틀전 어느날 오후 나는 버스를타고 아무생각없이 창밖을 내다 보고 있을때 한 중년의 정신지체장애인이 갑자기 내옆에 앉았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서로 쳐다보았고 그는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정필입니다.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가 막 말하고 났을때 우리뒤에 앉아있던 한 나이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봐, 정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니? 요즘은 통 볼수가 없네. 이보게 자네 친구가 누군가, 왜 말해보지 않구~!”

앤드류백스터(호주인)와 이은숙(한국인)부부이다. 그들은 그들 각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당함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문희씨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정책실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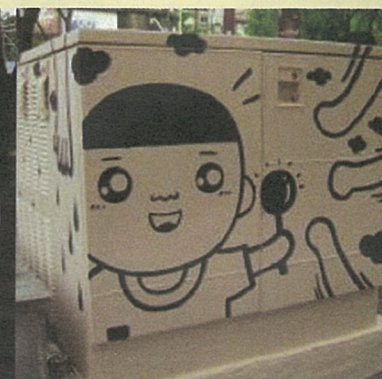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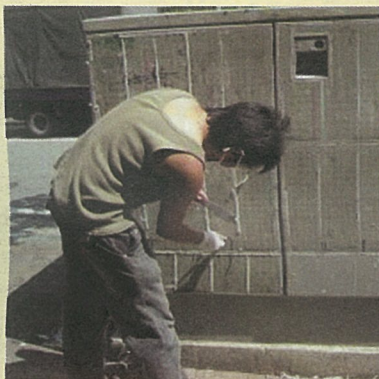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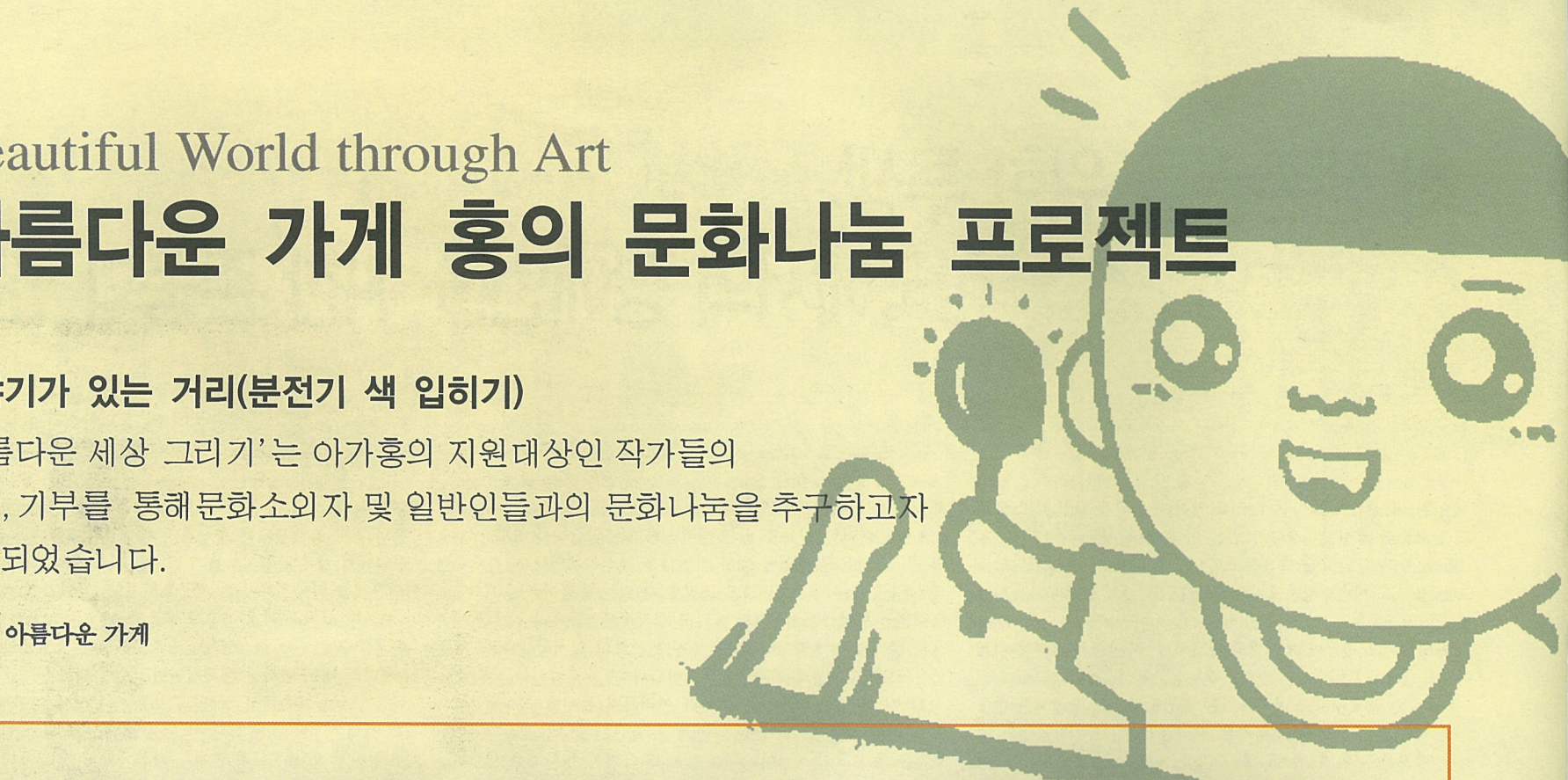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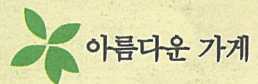


Beautiful World through Art

아름다운 가게 홍의 문화나눔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거리(분전기 색 입히기)

‘아름다운 세상 그리기’는 아가홍의 지원대상인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문화소외자 및 일반인들과의 문화나눔을 추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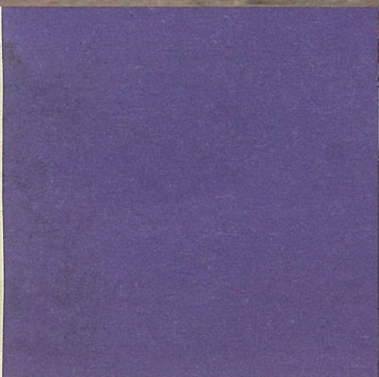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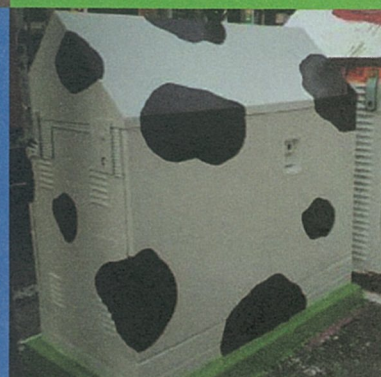


Drawing beautiful stories onto the street From old generators to Street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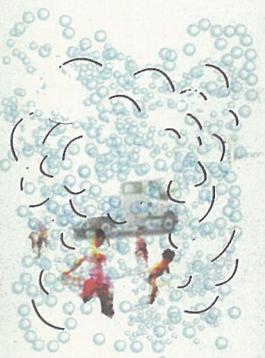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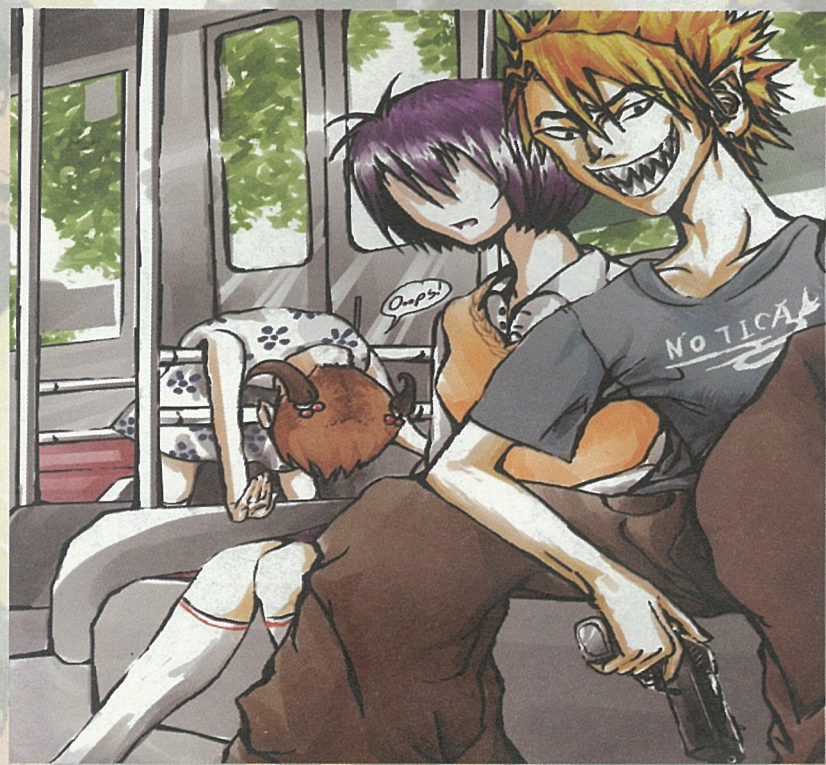
Beautiful Store

Culture project created by "Agashion"



Making the world beautiful project is an opportunity for people who don't have the time or the money to experience the art world.

**Send animation to
dddlifeinkorea@yahoo.com
Prizes to be announced.**



〈2005-09-13~현재〉

나는 길거리에서 소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살충제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막아준다.
계속 살포하라!

Vote@www.lifeinkorea.org

[illegible]

DD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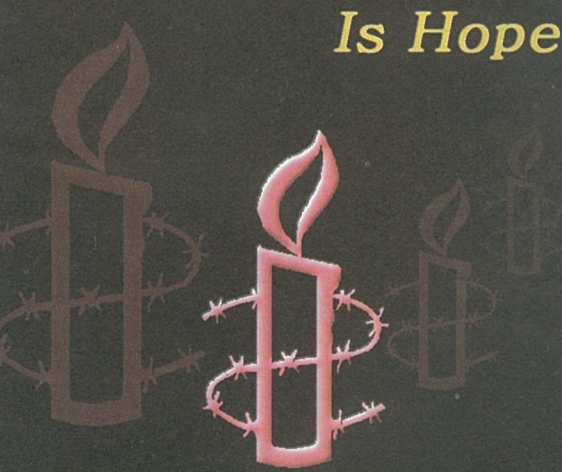
DDD 무료 게시판

<http://www.greens.or.kr>

VOTE GREENS

The Korea Greens
sun@greens.or.kr

Human Rights Is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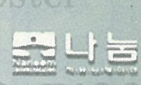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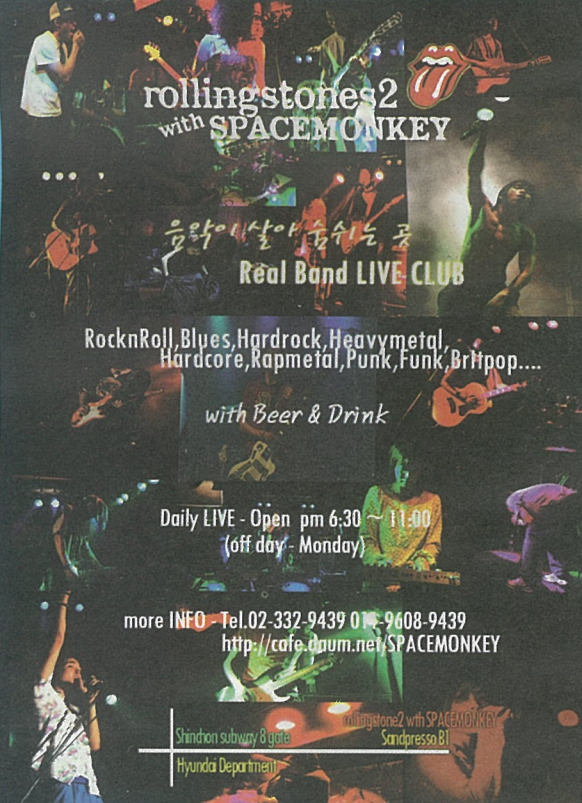
JOIN US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S. Korean Section

Tel. 02-730-4755, 4756
Fax. 02-738-4754
Email. amnesty@amnesty.or.kr
Homepage. www.amnesty.or.kr

Editorial Design

Book Newspaper Magazine
Newspaper Magazine
Ad Ad
Brochures Brochures
Catalogue Catalogue
Annual Catalogue
Poster Annual
Poster


Tel : 02)333-7136



rollingstones2 with SPACEMONKEY

음악이 살아 움직이는 곳
Real Band LIVE CLUB

RocknRoll, Blues, Hardrock, Heavy metal, Hardcore, Rap metal, Punk, Funk, Britpop....
with Beer & Drink

Daily LIVE - Open pm 6:30 ~ 11:00
(off day - Monday)

more INFO - Tel. 02-332-9439 010-9608-9439
<http://cafe.daum.net/SPACEMONKEY>


Shindong subway 8 gate Sandpresso.B1
Hyundai Department

bhp bh productions

ME and MY FRIEND

by gillian plowman

A black comedy, the pla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wo odd couples thrown prematurely out of hospital care.



The Black Room Theatre, Seoul
Opening in December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thebhpcompany@yahoo.com

LiNK

LIBERATION IN NORTH KOREA

LiNK stands for Liberation in North Korea. It is a non-profit, non-partisan, non-ethnic and non-religious group.

LiNK는 북한에서의 자유를 상징하는 비영리적, 비당파적, 초인종적 그리고 비종교적인 단체입니다.

www.linkglobal.org
Seoul chapter : linkseoul@gmail.com

Meetings every 1st and 3rd Thursday of the month, 7p.m.
회합 매 월 첫번째 세번째 목요일, 저녁 7시

SUPPORT YOUR OWN HEALTH

Punk

SKUNK HELL

Rock

우리의 펑크 클럽을 우리힘으로 지켜갑시다.
공연에 참여합시다.

SKUNKHELL.COM


아름다운가게

A warm neighborhood, Beautiful Store

Beautiful Stor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works for a more sustainable and sharing society. We sell secondhand goods donated from citizens, and shares the profits with our neighbors living in difficulties in our society.

Beautiful Store is always waiting for your contact.
Tel. 02-3676-1004
Email give@beautifulstore.org
Website www.beautifulstore.org

If you love Arts and Books, visit our special stores.
Art Shop, Beautiful Store Hong, 이기출 02-338-4256
Used book Store, Bamsaum '보람섬' 031-955-007



SOUND day

when The second friday of every month
time 8pm-5am
where Soundday 10 Clubs
entrance fee 15,000 won (includes 1 free drink)
www.soundday.co.kr

Basic Info.

THE CLUB DAY

when The last friday of every month
time 9pm-5am
where Clubday 14 Clubs
entrance fee 15,000 won (includes 1 free drink)
Must have I.D. to enter
www.clubculture.or.kr

Basic Info.

Contact dddlifeinkorea@yahoo.com